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 士 學 位 論 文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高 基 允

2023年 2月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許公碩

高基允

이 論文을 經營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2年 12月

高基允의 經營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김희철	
委員	이재성	
委員	홍재성	
委員	박진우	
委員	허윤석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2年 12月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논문구성	4
제 2 장 이론적 고찰	5
제1절 해외직접투자 개념	5
제2절 해외직접투자 이론	15
제3절 해외진출에 관한 고찰	29
제 3 장 베트남 해외진출 동향 및 제조업 현황	42
제1절 베트남 내 해외직접투자 현황	42
제2절 베트남 시장의 현황	48
제 4 장 연구 설계 및 방법	80
제1절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80
제2절 연구모형 및 가설	81
제3절 자료 분석 방법	86
제4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문항구성	87
제 5 장 연구 결과	90
제1절 표본의 특성	90
제2절 신뢰도 분석	91
제3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93
제4절 독립요인과 조절변수가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94
제 6 장 결 론	98
제1절 요약	98
제2절 시사점	100
제3절 한계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	102
참고문헌	104
부록 1	115

표 목 차

<표 2-1> 단독투자의 장단점	12
<표 2-2> 합작 투자의 장단점	14
<표 2-3> 더닝의 OLI 요소/절충이론	27
<표 2-4> 절충(OLI)이론에 근거한 해외진출방식의 선택	28
<표 2-5> 해외직접투자 경영성과에 대한 외국연구동향	31
<표 2-6> 해외직접투자 경영성과에 대한 국내연구동향	33
<표 2-7> 절충이론에 대한 연구 동향	35
<표 2-8> 경영성과 선행연구 요약	37
<표 2-9> ESG 항목별 주요 요소	39
<표 2-10> 비재무적 성과 선행연구 요약	41
<표 3-1> 1988~2021년 9월 누계, 산업별 한국기업 투자현황	42
<표 3-2> 최근 5년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43
<표 3-3> 베트남 내 FDI 기업의 대외교역 추이	44
<표 3-4> 연도별 외국인 총 투자액	44
<표 3-5> 싱가포르 '20/'21년 투자변동 현황	45
<표 3-6> 중국 '20년/'21년 투자변동 현황	46
<표 3-7> 일본 '20년/'21년 투자변동 현황	46
<표 3-8> 대만 '20년/'21년 투자변동 현황	47
<표 3-9> 홍콩 '20년/'21년 투자변동 현황	47
<표 3-10> 베트남의 FTA 추진 현황	48
<표 3-11>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개요	49
<표 3-12> 미-중 무역분쟁 이후 탈(脫) 중국 기업 현황('21년 10월 기준)	51
<표 3-13> 베트남 3분기 GDP 성장률 현황(2017~2021)	53
<표 3-14> 주요 경제 기관의 2021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동향	53
<표 3-15> 베트남 실업률 현황	54

<표 3-16> 베트남 정부에서 실시한 주요 경기 부양책(2020-2021)	55
<표 3-17> 산업단지 현황	59
<표 3-18> 주요 지역별 여건	60
<표 3-19> 베트남 지역구분 현황	67
<표 3-20> 베트남 임금 현황	67
<표 3-21> 연도별 주요산업 분야별 외국인 투자비율	69
<표 3-22> 2021년 한국기업의 베트남 업종별 투자 현황	70
<표 3-23> 2021년 1~9월 한국의 대베트남 전기·전자분야 베트남 투자기업 현황 71	
<표 3-24> 베트남 연도별 자동차 판매 현황	73
<표 3-25> 베트남 내 자동차 생산 현황	73
<표 3-26> 2020년도 베트남 최다 판매 자동차 상위 10위	74
<표 3-27> 베트남 섬유·의류 분야 수출입 동향	74
<표 3-28> 2021년 상반기 베트남 섬유·의류 분야 수출입 현황	76
<표 3-29> 2021~2025년 사회경제개발계획 내 인프라 투자 방향	76
<표 3-30> 인프라 시장규모 및 연간 성장률 전망치	77
<표 3-31> 2021년 한국기업의 베트남 업종별 투자 현황	78
<표 4-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87
<표 4-2> 설문지 문항 구성	89
<표 4-3> 조사대상자의 통제변수에 따른 특성(빈도분석)	90
<표 4-4> 구성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	92
<표 4-5> 변수 간의 상관관계	93
<표 4-6> 기업특유, 내부화, 입지 요인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94
<표 4-7> 기업특유, 내부화, 입지 요인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95
<표 4-8> 기업특유, 내부화, 입지 요인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96
<표 4-9> 가설 검증 요약	97

그림목차

<그림 3-1> 베트남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54
<그림 3-2> 삼성 스마트폰 해외 공장별 생산 비중	72
<그림 3-3> 최근 10년간 베트남의 제조업 PMI 추이 및 제조업 생산	79
<그림 4-1> 연구모형	81

논문요약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베트남 제조업에 투자하는 국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제조업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어떠한 준비를 해야 비재무적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베트남시장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알아보고 베트남 시장 내 제조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한국 투자기업의 비재무적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비재무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특유요인, 내부화요인, 입지요인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형태(단독 대 합작)와 투자동기를 매개변수로 하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조사를 활용하였고 코트라 홈페이지에 있는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2020 파일을 활용하여 베트남 현지 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한 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업특유요인, 내부화 요인, 입지요인, 비재무적성과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업특유요인, 내부화 요인, 비재무적성과는 각 두 변수간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나 입지요인과 다른 요인들 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주제어 :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독점적 우위요인, 내부화 우위요인, 입지 우위요인, 절충이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베트남은 전쟁 이후 남아있는 부작용과 해외 여러 나라들의 경제 제재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1979년 후반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부분적인 자유 시장 시스템을 도입한 경제 정책으로 경제가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장경제원리를 깨달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경제정책인 도이모이(刷新)정책¹⁾을 채택하면서 이후 베트남 경제는 연평균(2017~2020년) 7% 이상의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²⁾ 이에 따라 1995년 약 250 달러에 불과하던 일인당 국민소득도 2021년에는 일인당 약 3,725 달러에 이르게 되면서 중소득 국가의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

2007년 베트남이 WTO 가입한 후 국제 시장에서의 베트남 시장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직·간접적인 경제 교류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베트남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이제 베트남 시장에서 베트남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과 뜨거운 경쟁을 해야만 하는데, 시장에서 지위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를 통한 베트남 시장 진출이 필수적이다.

베트남은 아세안(ASEAN) 10개국 중 교역 1위, 투자 1위의 신남방정책⁴⁾의 핵심 협력 국가이자 주요 경제 파트너이다.

2022년은 한국-베트남의 수교 30주년이 맞이하게 되어 양국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관계는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진일보하는 방법을 의논 중이며, 이와 함께 협력의 영역이 광범위 해지고

1) 베트남어로 ‘변경한다’는 뜻의 ‘도이(loi)’와 ‘새롭게’라는 의미의 ‘모이(moi)’가 합쳐진 용어로 ‘쇄신’을 뜻한다

2) <https://www.kotra.or.kr/bigdata/marketAnalysis#search/VN>

3)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ation/actionNatIemDetail.do?pageNo=&pagePerCnt=10&SITE_NO=3&MENU_ID=220&CONTENTS_NO=1&pUntyCnttCd=&pUnNatCd=&uperCd=1&ctgySn=406&lowerCtgySn=505&chkNatSn=704&pRegnCd=01&pNatCd=704

4) 한국의 남방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안보 등 전방위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등 3P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친명한 대 ASEAN 외교정책이다

정도가 점점 깊어질 전망이다. 또한 팬데믹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뉴노멀시대(new-normal)⁵⁾에서 신성장·유망 산업 성장을 이끄는 양국의 새로운 기회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베트남은 정부의 열정적인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 유치 의지와 양자·다자간 FTA를 통한 교류 환경 확대 등으로 동남아시아 무역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으로서 입지를 확보하던 시기에 강타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침체를 경험한 후 2020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성장으로 복귀하면서 오히려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굳고 단단한 경제 기반이 확인되고 있다. 이로서 베트남은 아시아·대양주 내 핵심 생산거점으로서 역할과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베트남 FDI 투자국 순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베트남과의 교역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면서 중국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가 대다수 기업들의 생산 시스템에 차질을 일으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생산 기반 시설 이전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거점과 대체 공급처를 찾는 글로벌 기업의 움직임이 가속화 되면서 베트남이 대표 수혜지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기업들도 베트남 해외직접투자에 선제적 투자와 기존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베트남 코로나19 4차 유행의 지속성, 베트남의 종목별 투자유치 전략, 각종 투자 관련 규제, 소수 투자 집중된 현상에 따른 투자비용 상승 등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장애 요인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진출 한국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성공적인 경우도 많았지만 실패한 기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국과는 다른 사회·정치적 이질성,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경험과 준비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학문적으로 한국기업의 베트남진출 해외직접투자 성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황철근, 2008; 노승혁, 2008; 김희준, 2009; 문해진, 2009; 이제홍, 2012;

5)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에 자주 등장하는 말로,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는 새롭게 형성된 경제 질서로 통용되는데, 일반적으로 2007~2008년 진행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의미한다

김은, 2014; 박상협, 2017; 박경환, 2018; 이종건, 2019; 강지훈, 2020; 이지수, 2021 백은영, 2022). 대부분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모기업이나 자회사 특유요인, 베트남시장 환경요소, 그리고 현지 마케팅 전략 요소 등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비재무적 성과로 측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이론으로서 독점적 우위론, 내부화 우위론, 입지우위론을 통일한 Dunning(1980)의 절충이론(Eclectic Theory)에 입각하여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투자 비재무적 성과를 분석·설명을 하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팬데믹 상황에서 연구해 본적이 없는 해외직접투자에 절충이론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논문 구성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절충이론 관점에서 독점적 우위요인, 내부화 우위요인, 입지 우위요인 등이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보자 한다. 이는 베트남이라는 일당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해외직접 투자에 절충이론이 적합하게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코로나 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유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본 논문은 Dunning(1980)의 절충이론에 근거하여 베트남진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 투자시 중요한 사항인 독점적 우위요인, 내부화우위요인, 입지우위요인 등이 우선순위라는 근거 하에 본 연구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 작성을 완성하였다. 베트남진출 한국기업중 제조업 기반의 기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또 이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2장에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내용 및 이론적 배경과 해외진출에 관한 주요 연구를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기업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베트남 시장 현황 중 제조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Dunning(1980)의 절충이론에 기초하여 해외직접투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의 연구 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조사 대상과 변수 측정 및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한 뒤, 마지막으로 제6장은 분석 결과를 정리한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해 한계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본 논문을 마무리 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해외직접투자 개념

Soonreea-Bhemul and Sooreea(2012)는 국경을 건너는 자원의 이동뿐만 아니라 자본과 관련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재무적 통제에 관한 FDI를 정의한다.

Samuel(2013)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해외직접투자가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는 천연자원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이를 채취하고 수출하는 것이다.

Reiter and Steensma(2010)는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으로 투자대상국의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식과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로 개발도상국이 기술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OECD는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각국에 상호 비교 가능한 통계를 제공할 목적으로 “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회원국이 이 안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⁶⁾ 한편 IMF는 각국의 국제수지 편제에 통일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⁷⁾ UN의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UNSC)에서는 국민소득(GNP) 등 국민계정 통계 통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바⁸⁾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을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을 국제기구 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라고 부르고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외국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라고 부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다⁹⁾

해외직접투자란, 한국의 거주자가 다른 국가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취득하여 그

6) 최초 보고서는 1083년에 출간되고 이후 개정판이 꾸준히 출간되고 있음, OECD홈페이지 (<http://www.oecd.org>)

7) Balance of Payment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BPM), IMF홈페이지 (<http://www.imf.org>)

8) 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 UN통계국 홈페이지(<http://unstats.un.org>)

9) 영어로는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및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로 구분하여 부른다. 특정국가의 시각에서는 대외직접투자과 대내직접투자는 다른 것이지만 국제기구 시각에서는 양자는 같은 것이므로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경영에 참가하는 형태의 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이해되고 있다. 이는 투자자와 상대 국가 간에 직접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의 유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투자기업의 경영에 참가할 목적 없이 그 기업의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형태의 일명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해외간접투자와의 구별된다.¹⁰⁾

이 같은 기본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제기구들은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무역의 발전, 기술의 혁신, 노동력의 이동을 통해 세계 경제의 합치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의 혁신을 이룰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협의의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를 “한 국가의 투자자가 다른 국가의 기업에 지속적인 이해관계 (lasting interest)를 가질 목적으로 하는 국경 간 투자”로 정의하면서 그 지속적인 이해관계는 “투자자가 투자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significant degree of influence)을 장기간에 걸쳐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기업에 대하여 10%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입증된다.”고 한다.¹¹⁾

2) 광의의 해외직접투자

시장 규제 완화, 기술 혁신 및 저렴한 통신 도구들은 투자자들이 경쟁 시장에서의 참여를 더욱 다양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결과,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이동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해외직접 투자는 국제 경제 통합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것을 세계화라고 정의한다.¹²⁾

(1) 자원개발 해외투자

한 국가의 거주자가 다른 국가의 광물자원, 석유자원, 생물자원, 수자원 등을 사용할 장기간의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이를 해외투자자로 본다. 상대국에 투자기업을 설

10) 서문식(2015), “해외직접투자 정의와 관련한 제 문제”, 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Vol. 12 No.3 pp. 147-180

11) 이시욱·전봉걸·장미애·권가원(2013), “국제기준에 따른 외측법상 FDI 정의 및 통계 개선방안”, 산업통산자원부 p. 20

12) 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2008) FOURTH EDITION p.20

립 또는 취득하여 이러한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협의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이러한 권리를 갖는 경우에도 마치 상대국에 투자기업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여 해외직접투자자로 본다.¹³⁾

(2) 외국부동산 취득

외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해외직접투자자로 본다. 그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주거 등)로 사용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2)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정의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다. 거의 OECD Definition과 유사한 방식이나 차이점 또한 나타내고 있다.

(1) 협의의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⁴⁾

구체적으로는 ①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그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② 그 취득비율이 1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임원의 파견,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체결 등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 ③ ①, ②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및 ④ ①, ②, ③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

13)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
2.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1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4항

고 있다(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제4호).¹⁵⁾

(2) 광의의 해외직접투자

① 국내기업 해외지사

국내기업이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설치비 및 영업기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광의의 해외직접투자 정의에 포함된다(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¹⁶⁾

② 외국에서 비법인형태 기업 설치·운영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¹⁷⁾

1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 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는 위한 자금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16) 각주 15 참조

17) 각주 15 참조

③ 자원개발 해외투자

해외자원 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광의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된다(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¹⁸⁾

2.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을 산업조직론 관점에서 구분한다면 크게 수평적 직접투자, 수직적 직접투자, 다각적 직접투자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소유지분구조에 따라서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나눌 수 있다.

1) 산업조직론 관점

(1) 수평적 해외직접투자

Markusen(1984)은 기업의 생산 공정과 경영활동을 국내와 동일하게 해외에서 생산하여 현지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수평적 해외직접투자로 정의하였다. 기업이 시장 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이므로 수출과 현지시장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이모형은 FDI가 기업 규모의 경제(firm level economies of scale)와 무역비용(trade of cost)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

(2)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Helpman(1984)은 국가 간 생산요소 가격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수직적 FDI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생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의 생산과정을 모기업의 서비스(headquarter service)와 제조공정으로 나누어 두 생산과정 간에 요소집약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18) 각주 15 참조

19) Markusen, J.(1984), "Multinationals, Multi-Plant Economics, and the Gains from Trad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4), pp. 1375-1418

가정하였다. 이 경우 기업은 이들 공정의 요소집약도 차이에 따라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생산 공정을 분할하는 것을 수직적 해외직접투자로 정의하였다. 즉 모기업이 서비스가 기술집약적이고, 제조공정이 노동집약적인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노동 풍부한 국가에서 제조공정을 두려 할 것이다.²⁰⁾

Markusen(1996)과 Markusen and Venables(1998)의 지식-자본 모형에서 수직적 FDI는 경제 규모와 생산 요소 부존도가 상이한 국가 간에 제품 생산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시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그 결과 수직적 FDI에서는 투자 대상국의 임금 및 기술 수준, 생산요소 가격이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²¹⁾

(3) 다각적 해외직접투자

다각적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가 본국에서 기존 사업과 무관한 분야에 해외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월마트는 독일 폭스바겐에 투자할 수 있다.²²⁾

다각적 해외직접투자는 각 국가 간 경기 주기의 상태와 산업 간 경기 사이클의 차이와 산업 간 경기 사이클의 차이를 사용하여 손실을 2중으로 헷지(hedge)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으나 전문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국제경쟁력의 확보에는 많은 난관을 동반한다는 약점을 지닌다.

2) 소유 지분 관점

국제경영에서 소유지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자본참여 비중을 의미하는 투자지분(equity), 경영에 관계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영 통제권(control), 투자성과에 따른 경영평가의 배분(allocation of economic benefits) 등을 함께 넣어야 한다(Fagre and Wells 1982). 그러나 경영 통제권이나 경제적 편익의 분배는 수식화하기가 곤란하므로 소유 지분(equity)을 의미하는 투자비율을 기초로 소유 지분 형태

20) Helpman, E.(1984), "A simpl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with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2(3), p. 451

21) Markusen, J. and Venables, J.(1998), "Multinational firms and the new trade theor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6, p. 183

22) <https://www.investmentmonitor.ai/global/what-is-fdi>

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투자자가 현지 자회사의 소유지분을 95%초과 보유하는 단독투자(wholly-owned subsidiary)와 현지 자회사의 소유지분을 5%초과 95%이하 보유하는 합작투자(joint venture)로 분류할 수 있다²³⁾

(1) 단독투자

직접투자 형태의 해외진출은 기업이 경영, 기술, 마케팅, 재무역량과 기법을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의 형태로 현지시장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국제경영방식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중 단일투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95% 이상을 단독 소유하는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신규 설립되거나 취득된다.

단독투자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이다.²⁴⁾ 인도는 과거에 외국인 소유지분에 관한 엄격한 제한이 있어서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 기업과 파트너 합작이 필수였다. 하지만 인도의 외국인 투자규제 환경이 오래되어서 외국파트너에게 어떻게 대하면 가장 능률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다. 그래서 외국 파트너들이 인도 기업과 합작하면 결국 대부분 실패하고 되어 있는 구조였다. 게다가 같은 인도 내에서도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다른 주를 바라보는 일반 인도인들의 시각은 다른 국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대했고 의사소통에도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²⁵⁾ 또한 전통적으로 대가족 위주의 생활관습에 익숙한 인도 직원들은 전근희망자들이 한명도 없어 한국인 직원만 전근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인도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때 의사결정 방식, 경영방침 등에 있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단독진출을 선호하고 있다. 이후 외국인에 대한 투자규제가 완화되고는 있지만, 성장속도가 좋고 시장규모가 거대하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소매유통업종, 은행, 통신, 미디어 등은 아직도 인도인과 합작을 의무화와 출자

23) Franco(1971), Stopford and Wells(1972), Gomes-Casseres(1989)는 해외직접투자자가 소유지분을 95%초과 보유하는 때에는 단독투자, 소유지분을 5%초과 95%이하 보유하는 때에는 합작투자로 분류하였다

24)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에 따르면(2017년) 인도진출 우리나라 기업 271개중 단독투자 246건, M&A1건, 합작투자21건, 합자2건, 기타1건으로 단독투자비중이 90.8%이다

25) 마하라슈트라주를 예로 들면, 힌두교가 약80%로 힌두어를 사용하고 무슬림이 약11%로 마라티어를 사용한다

지분비율제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시장진출에 급급한 외국파트너들은 인도 현지기업의 경영방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합작하면 실패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인도는 합작시대를 마감하고 100%단독투자를 시도 하고 있다. 바이엘, 굿이어, 질레트, 데이터 크래프트, 스즈끼, EMI, 스프린트, 제록스, 메릴린치등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합작관계를 탈피하고 완전 단독투자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합작투자가 주를 이루었던 시대는 거의 끝났고, 해외로 진출하는 인도 기업들이 해외진출 전략으로 단독투자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표 2-1> 단독투자의 장단점

장점	단점
자사가 보유한 핵심기술, 경영노하우 등의 보호(첨단기술 기업이 이에 해당)	투자비용과 위험이 큼
해외 자회사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통해 글로벌 전략 수행이 가능함	현지 적응 문제
수익을 독점할 수 있음	M&A를 할 경우 현지적응문제는 감소하지만, 상이한 조직문화를 가진 피인수 기업에 대한 관리 문제가 발생

(2) 합작투자

해외시장 진입방법으로써 합작투자는 최근 30년 동안 가장 많이 활용된 방법이다. 합작투자는 파트너의 실질적인 자본참여에 의해 정치적·경제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도 법률적인 문제와 함께 문화적인 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에 진출할 때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보다 훨씬 덜 위험한 방법이 된다.²⁶⁾

합작투자는 전략적 제휴나 기타 협력관계와는 다른데, 합작투자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여 실질적이며 독립적인 법적 실체를 갖는 기업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합작투자는 다국적 기업이 현지 기업의 지분을 소수 보유하는 것과는 다르다.

26) Philip R. Cateora, Mary C. Gilly, John L. Graham (2013), “카테오라의 국제마케팅” pp. 459-460

합작투자의 4가지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작투자기업은 모기업과 분리되어 법적실체를 갖는 독립적 기업이다. 둘째, 합작투자경영은 각 파트너의 의견이 공유되어 이루어진다. 셋째, 개인 간의 파트너 관계가 아니라 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정부처럼 법적으로 허가된 실체간의 파트너 관계이다. 넷째, 각 파트너의 지분소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국제합작투자는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 훌륭한 파트너의 선택과 경영자 간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제합작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중용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몇 개의 요인들이 국제합작투자를 성공 혹은 실패로 이끈다. 파트너들 간의 기업 통제분배,²⁷⁾파트너와의 관계²⁸⁾,제도적(법적)환경, 마케팅 역량,²⁹⁾ 경험,³⁰⁾ 파트너들 간에 지식 공유수준³¹⁾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에도 거의 대부분 기업이 국제적으로 최소한 하나 이상의 국제합작투자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거의 10여개 이상의 합작투자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컨퍼런스 보드(Conferenec Board)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포춘500대 기업(Fortune 500)의 거의 40% 정도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제합작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통신업 시장과 인터넷 시장의 경우에는 합작 투자를 점점 더 많이 선호하고 있다.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국기업들은 낮은 법적, 문화³²⁾적 장벽에 대

-
- 27) Chris Styles and Lis Hersch,(2005), "Relationship Formation in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Insights from Australian-Malaysiam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13 pp. 105-134
- 28) 28) Jeffrey Q. Bardon, H. Kevin Steensma, and Marjorie A. Lyles(2005), "The Influence of Parent Control Structure on Parent Conflict in Vietnamese IJVs: An Organizational Justice-Based Contingency Approach",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36, no. 2, pp. 156-174
- 29) Eric (Er) Fang and Shaoming Zou(2009),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Marketing Dynamic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0, no.5 pp. 742-761
- 30) Sengun Yenyurt, Janel D. Townsend, S. Tamer Cavusgil, and Pervez Ghauri (2009), "Mimetic and Experiential Effects in International Marketing Alliance Formations of U.S. Pharmaceuticals Firms: An Event History Analysi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0, no.2 pp. 201-301
- 31) Yadong Luo(2005), "Transactional Characteristics,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Joint Venture Contrac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6, no. 2 pp. 209-300; Changhui Zhou and Jing Li(2008), "Product Innovation in Emerging Market-Based International Joint Venture: An Organizational Ecology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9, no. 7 pp.114-312; Jean-Paul Roy and Legal Christine Oliver(2009), "International Joint Venture Partner Selection: The Role of the Host-Country Legal Environ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0, no. 5 pp. 779-802
- 32) Yang et al(2018) 유사한 문화와 유전적 배경은 상호 투자의 민족적 유대를 제공한다

응하기 위하여 기존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인 합작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현지 파트너들은 종종 법적분규를 해결해 주기도 하며 이방인 기업이 현지 문화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합작투자는 국제 마케터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대단히 매력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특정기업이 현지 파트너의 특별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마케터가 파트너의 현지 유통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 환전소유 자회사 방식이 금지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관세나 쿼터 제도 등으로 보호되는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해외진출을 수행하기에 기업의 자본이나 인적역량이 부족할 때 등이다.

<표 2-2> 합작 투자의 장단점

장점	단점
이익 배당의 지속적 수여	당사자 간의 기업목표의 이견 존재
투자 자금 부담의 완화	상이한 문화적 배경으로 의견 충돌
투자국에서 세제, 관리상의 혜택	경영전략의 완벽한 통제 불능
현지정보의 신속한 입수	경영 시각의 차이
외국 기업의 차별적 행위 방지	자금 동원의 어려움
노사 관계의 개선	이익 배당시 의견 차이의 문제

제2절 해외직접투자 이론

1. 독점적 우위이론 (Monopolistic advantage theory)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기업은 현지 기업과 비교하여 필연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독점적 우위이론은 이러한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현지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즉, 독점적 우위이론은 해외사업 활동을 하는 해외진출기업은 현지 경쟁기업들에 대해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함 내지는 외국비용을 가지게 된다는 단순한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Hymer³³⁾, Caves³⁴⁾, Kindlerberger³⁵⁾ 등에 의해 주장된 이 독점적 우위이론은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외국기업이 현지국 기업에 비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국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현지국 기업이 갖지 못한 기업특유의 우위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Kindlerberger(1969)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을 포함하는 재화 및 요소시장의 불완전성 그리고 시장을 분리시키는 정부 또는 기업의 간섭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이론은 시장의 불완전성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완전경쟁하의 기업은 동질의 재화를 생산하며 또한 생산요소의 이용에 있어서도 동일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직접투자가 일어날 수 없고 무역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시장이 불완전하면 기업은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행한다는 것이다. 즉 독점적 우위를 확보해야만 외국비용을 커버하고 충분한 이익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편으로 다국적기업의 독점적 우위는 시장불완전성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외국비용의 원천으로는 현지국 기업에 유리한 경제 제도³⁶⁾와 법률 제도, 사회적 관습, 언어³⁷⁾와 문화,

33) Hymer (1960, 1976)는 자신의 논문에서 자국에서 진입 장벽등 '구조적 시장 불완전성(structural market imperfections)'에 기반 하여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기업들이 자신의 독점적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FDI를 한다고 설명했다

34) Caves, Richard. E (1974), "A cause of direct investment: Foreign firm's shares in Canadian & UK manufacturing Industrie", Review of Economic Statistics 56(3), pp. 279-293

35) Kindlerberger. C. P. (1969), "American business abroad six lectures on direct investment",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3

소비자의 기호, 교통 및 통신비용, 현지국의 주민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민족주의적인 차별대우, 현지국 사정에 대한 지식부족, 본사와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에서 활동함에 따른 비효율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외국비용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통해서 외국기업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요소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기업특유의 우위 요소는 기업이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자기기업 내부에 축적해 놓은 지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산 기술, 마케팅 노하우, 경영관리 능력, 상표 및 특허권 규모의 경제, 자본의 조달과 그 관리능력, 수직적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이 있다.

이러한 지식은 이미 과거의 투자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투자기업이 그 지식을 사용하는데 드는 한계비용은 0에 가깝다. 반면에 현지국 기업이 이와 같은 지식을 획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우위요소들은 최초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다시 발생시키지 않고 새로운 경쟁기업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다. 경영전략의 관점에서는 진입장벽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은 이러한 독점적 우위를 이용하여 본국에서와 동일한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수평적 투자의 경우 제품을 차별화 할 수 있으며, 산업구조는 과점적 형태를 띠게 되어 추가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기업의 독점적 우위의 존재가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독점적 우위는 그 속성 때문에 직접적인 파악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업들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충당하는 지출액을 통해 대략 파악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동종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광고비용과 연구개발(R&D)비용의 크기를 독점적 우위의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독점적 우위이론은 과거 전통적 자본 이동론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해외국가간의 상호투자 현상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있다. 즉, 독점적 우위는 국가의 특징이 아니고 기업의 특징이기 때문에 양 국가 각각의 기업이 기업특유의 우위요소에 입각한 차별적 제품을 가지고 상대방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면, 두 기업이 동일 산업에 속해있다 할지라도 국가 간

36) Guler and Guillen(2010)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고, 개선할 수도 있다

37) Lennon(2006) 투자대상국이 투자국과 동일 언어를 사용하면 두 국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을 줄일 수 있다

에 상호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이론에 한계는 독점적 우위요소가 해외직접투자에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독점적 우위이론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는가의 입지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국가 간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순수무역이론과는 달리 개별기업의 독점적 우위에 기초를 두고 해외직접투자 현상을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유용하다. 또한 전통적 자본이동론의 관점처럼 해외직접투자를 자본의 국제적 이동현상으로만 이해하고 있던 그 시대의 경향에서 탈피하여 산업 조직론적 입장에서 해외직접투자 이론을 개적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절충이론이나 내부화이론의 근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내부화이론(Theory of Internalization)

독점적 우위이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Buckley(1976)와 Casson³⁸⁾등은 내부화(Internalization)의 개념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 현상을 설명하였다. 내부화이론의 기원은 Coase³⁹⁾의 The Nature of the firms에서 출발하여 Williamson⁴⁰⁾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발전되었으며 Buckley와 Casson(1976)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 이론에 접목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독점적 우위이론 등과 같은 산업조직론적 접근이 시장불완전성을 통한 진출기업의 우위성에 대해 이론적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필요조건은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우위성을 수출이나 라이선싱 대신에 왜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이전하는가라는 문제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제시하고자 등장한 이론이 내부화 이론이다.

내부와 이론에서는 불완전한 세계시장에 있어서 다국적기업의 특수적 우위를 활용하는 가장 능률적인 방법을 내부화라고 파악한다. 내부화란 필요한 여러 거래를 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그들 시스템 내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내부화 이론은 해외직접투자를 이러한 내부화 또는 내부시장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규정하는 이론이다.

이것은 개별기업간의 라이선싱을 통한 계약을 할 경우 외부거래자를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 외부거래자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거래 성립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거래 당사자들의 이윤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기업 내부거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내부화이론은 중간재 시장의 불완전성, 지식 및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하여 기업이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설명한 이론으로서 시장의 불완전성만 가정한다면, 어느 시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기업이 외생적인 시장 불완전성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시장의 불완전성을 창출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하는 점과 특별한 생산입지 요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38) Buckley와 Casson(1976), The futur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UK

39) Coase, R.M.(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s" pp. 386-405

40) Williamson, Oliver. E (1975), 'Markets & Hierarchies, NY The free Press

결론적으로 내부화 이론은 기업이 시장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거래를 내부화하는데 이러한 내부화가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질 때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며 기업의 다국적 문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화 이론은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일반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내부화이론의 학자별 주장을 보면

1) 버클리의 주장

버클리(Buckley)는 외부시장에서 소유권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시장 거래를 정상시장가격(arm's length transaction)이라 하고, 반면에 기업 내부시장에서 소유권이 이전이 이루어지는 개념상의 거래를 내부거래(internal transaction)라고 주장한다. 내부화이론은 외부시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불완전성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 기업 내부에서 낮은 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만 있다면 기업은 외부시장 기능을 대신하여 그 거래를 내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코어스의 주장

코어스(R. H. Coase)는 어떤 종류의 거래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장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업이 시장기능을 대신한다고 하였다. 시장을 통한 거래는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기업은 내부화를 통해 시장 거래를 대신하려고 한다. 여기서 거래비용이란, 시장거래를 완결시키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거래상대방을 찾는 데 소요되는 탐색비용(search cost), 계약의 완전이행 과정을 위한 감시비용(monitoring cost), 거래의 협상비용(negotiating cost),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비용이라 함은 꼭 돈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회비용 등을 포함한다. 즉 외부 중간재 시장의 불완전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내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행한다고 주장한다.

3) 카슨의 주장

외부시장에서 소유권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시장거래를 정상시장가격(arm's length transaction)이라 하고, 반면에 기업 내부시장에서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개념상의 거래를 내부거래(internal transaction)라고 주장했다.

내부화 이론에 의하면 외부시장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불완전성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 기업 내부에서 낮은 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만 있다면 기업은 외부 시장 기능을 대신하여 그 거래를 내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부화이론은 기업이 시장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거래를 내부화하는데 이러한 내부화가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질 때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며 기업의 다국적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화 이론은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일방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첫째,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 동기를 시장 불완전성의 존재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시장불완전의 존재만으로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둘째, 기업이 오히려 시장 불완전성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즉 다국적기업은 직접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시장 불완전성을 창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셋째, 다국적기업은 다국적기업 집단 내의 자원뿐만 아니라 현지국 기업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진출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투자는 설명을 못한다.

넷째, 해외직접투자가 어떤 국가로 행해지느냐에 대한 설명을 못하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요인, 특히 입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라이선싱보다 해외직접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지만 수출도 내부화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출보다 해외직접투자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곤란하다.

3. 과점적 경쟁이론(Oligopolistic Competition Theory)

이 이론은 니커보커(F. T. Knickerbocker, 1973)가 미국 187개 제조업 부문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해외투자 동기를 조사한 결과 제시되었다. 과점산업에서는 차별화된 제품이나 동일한 제품을 취급하는 몇몇 소수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는 경쟁기업 상호간의 행동-반응(action-reaction)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과점시장의 산업에서 선도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경쟁기업은 선도기업의 새로운 행동에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선도기업의 우위에 의해서 경쟁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적 위치를 상실하거나 성장의 기회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즉, 과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경쟁기업의 행동에 극히 민감하며, 기업들 간의 이러한 상호의존성 과점적 경쟁이라는 과점특유의 기업경영행태를 낳는다. 해외진출 분야에 있어서도 일부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경쟁기업은 불리한 입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도 경쟁자를 모방하여 해외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과점기업의 1차적인 목표는 이윤극대화라기 보다는 경쟁기업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거나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유지함으로써 기업 간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소한 다른 경쟁기업만큼 성장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과점적 경쟁이론은 과점산업에 있어서 선도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경쟁기업의 대응적 방어적 투자로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이때 이러한 과점적 경쟁의 결과로서 특정지역에 대한 동일산업 내 경쟁기업들의 진출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라고 한다. 맥도널드가 진출하는 곳에 버킹햄도 진출하고 애플이 진출하는 곳에 삼성도 같이 진출하는 것과 같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해외진출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국내 출점에 있어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근접 거리에 다른 상호의 편의점이 비슷한 시기에 오픈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과점은 제한된 수의 대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이다. 예를 들어, 4개의 기업이 국내 시장의 80%를 지배하는 산업은 과점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산업의 중요한 경쟁적 특징은 주요 기업의 상호 의존성이다. 한 기업이 하는 일은 주요 경쟁사에 즉각적

인 영향을 미쳐 현물 대응을 강요할 수 있다.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과점 상태에 있는 한 회사는 경쟁사들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수 있고,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비슷한 가격 인하로 대응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점에서 기업 간의 상호 의존성은 모방 행동으로 이어진다. 경쟁자들은 종종 기업이 과점에서 하는 것을 빠르게 모방한다.⁴¹⁾

한편 과점기업들은 과점산업으로부터 신규기업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구축함으로써 독점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진입장벽으로는 신규참여 기업에게 과도한 자본투자를 유발하게 하는 규모의 경제, 수직적 통합을 통한 희소 원자재에 대한 공급 통제, 첨단 기술을 이용한 차별화된 제품, 특허, 등록상표, 브랜드와 같은 지식재산 등을 들 수 있다.

과점적 경쟁이론은 특히 선진국 간의 동종산업 내의 상호투자를 설명함에 유용하며, 또한 해외직접투자가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어서 1950대와 1960년대에 걸친 미국 기업들의 대유럽 집중투자를 설명함에 유용성을 갖는다. 또한 절충이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경쟁이라는 요인을 인식시켜준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다른 경쟁기업들이 반응하게 만드는 최초 투자기업 즉 선도기업의 투자의 사결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과점산업에서 경쟁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여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선두기업을 따라서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응적 투자를 유발하는 선발기업의 최초 투자를 있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투자기업이 그들의 투자를 여러 나라에 분산투자하는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41) Charles W. L. Hill, Chow How Wee and Krishna Udayasakar(2015), International Business p. 245

4. 거래비용이론

거래비용이론은 시장실패에서 비롯되는 거래비용이 높게 발생될 경우 정상시장거래 대신 거래의 내부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제약시킬 수 있다는 시장과 위계(market and hierarchy)의 선택 준거를 제시한다(Coase 1937, Williamson 1975).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공급업체나 유통업체를 한 조직으로 통합할 경우 내부조직 간의 거래, 즉 내부화를 통하여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거래비용을 제거하고 또한 개별 주체간의 계약이 갖는 불완전성의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독점적 무형자산인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자본 및 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도 자신의 독점적 우위를 지속시키고, 또한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신의 무형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가능한 방지하려고, 즉 내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의 무형자산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라이선싱의 사용보다는 현지 지사의 설립을 통한 통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라이선싱을 통해서 기업 자신의 무형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상대방에게 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자신이 개발한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내부적 통제를 높이기 위해서는 라이선싱보다는 현지자회사를 통한 직접생산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래비용이론에 근거하여 기업은 해외진입방식의 결정을 할 때, 기업의 해외진입방식 결정이 투입될 자원(기술, 자본, 인력 등)에 대한 통제(control)와 비용(cost : 고정비용 및 변동비용)의 상충관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다. 즉 높은 통제가 가능한 해외진입방식(완전소유자회사)에는 높은 수익과 위험이 따르게 되는 반면, 낮은 통제의 방식(수출, 라이선싱)에는 낮은 비용과 위험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균등지분의 합자투자회사는 두 극단적인 형태의 중간적 성격을 보인다.

이러한 기업의 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주요 요인으로 거래특유자산(생산 및 생산 공정을 전문화 시키는 데 요구되는 투자), 외부적 불확실성(정치, 경제 등의 경영환경의 불안정성), 내부적 불확실성(대리인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성), 무임승차 잠재성(대리인들의 무임승차 기회 등)이다. 나아가서 이들 네 요인을 가지고 기업의 해외진입방식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 할수 있다.

첫째, 기업의 거래특유자산(생산 및 생산 공정)이 효율적일수록(브랜드 인지도, 신제품, 소비자기호에 일치), 더 높은 통제력의 해외진입방식의 사용이 가능하다. 둘째, 기업의 국제적 경험이 높을수록 더 높은 통제력의 해외진입방식의 사용이 가능하다. 셋째, 외부적 기업환경의 불확실성(경제적 및 정치적 불안정성, 문화적 차이 등)이 높을수록 낮은 통제력의 진입방식의 사용이 더 적합하다. 넷째, 현지국에 이미 수많은 경쟁적인 외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다면 낮은 통제력의 진입방식의 사용이 더 적합하다.

5. 절충이론(Eclectic Theory)

1) 이론적 구성

더닝(J. H. Dunning, 1980)은 독점적 우위이론과 내부화 이론에 입지이론을 덧붙여 국제생산에 관한 절충이론(eclectic theory)을 주장하였다. 이전까지 개발된 이론은 해외직접투자의 일부분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모든 이론을 통합할 수 있는 일반이론의 정립을 시도한 결과 절충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독점적 우위이론은 수출이나 라이선싱에 비해 직접투자의 비교우위요소가 명확하지 않고, 내부화이론은 입지특유의 우위요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더닝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근거와 방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위치별 장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위치별 장점에 따라, 더닝은 특정 해외 위치와 연계된 자원 기부금 또는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장점과 기업이 고유한 자산(기업의 기술, 마케팅 또는 관리 능력 등)과 결합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닝은 기업이 자신의 고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라이선스하기 어렵다는 내면화 이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는 위치별 자산이나 자원 기부를 기업 자체의 고유한 역량과 결합하는 것은 종종 외국인 직접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업은 그러한 해외 자산이나 자원 기부가 있는 곳에 생산 시설을 설립할 것을 요구한다.⁴²⁾

더닝은 해외직접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우위요소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절충하여 설명하였다.

절충이론에 의하면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를 외부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내부화하는 것이 유리할 때 기업은 라이선싱보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하게 되고, 자본, 기술, 경영기법 등을 해외로 이전하여 입지 특유의 우위요소인 현지의 생산 요소와 결합하여 현지 생산하는 것이 국내생산보다 유리할 때 수출 대신 해외직접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42) Charles W. L. Hill, Chow How Wee and Krishna Udayasakar(2015), International Business p. 247

(1)기업 특유의 우위(ownership-specific advantages)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란, 기업이 장기간의 경영을 통해 기업내부에 축적해 놓은 무형자산으로서,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경영기법 또는 마케팅 노하우 등을 설명한다.

(2)내부화의 우위(internalization-specific advantages)

내부화의 우위요소는 내부화에 따른 이익이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얻는 이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조건으로서 이를 내부화하여 얻는 이익이 커야 한다.

(3)입지특유의 우위(location-specific advantages)

입지특유의 우위요소는 해외직접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지적 요인을 말한다. 이러한 입지요인이 유리하게 작용되는 지역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 2-3> 더닝의 OLI 요소/절충이론

기업특유우위 (Ownership-specific advantage)	기업의 다국적성에 기인하지 않는 우위 · 기업규모, 다양성, 독점적 지위 · 특허, 상표권 등 전유적 무형재 및 관련능력 · 생산, 조직, 마케팅 시스템, R&D 능력, 인적자본, 경험 · 각종 자원 및 제품시장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접근능력 · 정부의 보호 기업의 다국적성에 기인하는 우위 · 위험분산능력 · 정보수집, 시장접근능력 · 기업 내 거래를 통한 네트워크 우위 · 제고된 대정부 협상능력
내부화의 우위 (Internalization incentive advantage)	· 거래 당사자 탐색, 협상, 조정비용 절감 · 독점적 권리의 보호 · 매매자 불확실성 감소 · 외부적 가격차별화 불가능/내부시장능력 · 제품품질 유지 · 거래 및 공급의 안정성 유지 · 쿼터, 관세 등 정부간섭 및 규제 회피 · 전략적 상호보조 등 경쟁전략우위
입지특유 우위 (Location specific advantage)	· 생산요소비용 · 운반비, 통신비 등 인프라 비용 · 관련 인프라 및 관련기업능력 · 정부간섭 및 규제/수입규제/투자유인/투자환경 · 경제 하부구조 · 정치적 안정성 · 국제 문화적 거리감

이상에서 살펴본 모든 우위요소들은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결합되어 있어야 해외직접투자가 가능하다.

더닝(1980)은 해외진출의 중요한 요소로서 기업 특유의 우위(ownership-specific advantages), 내부화의우위(internalization-specific advantages), 입지특유의 우위(location-specific advantages)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수출은 기업특유의 우위요소와 내부화 우위요소가 충족되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라이선싱은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만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OLI 모형은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를 더 잘 설명해 준다(Huang and chi, 2014).

<표 2-4> 절충(OLI)이론에 근거한 해외진출방식의 선택

진출방식 \ 결정요소	우위요소		
	기업특유우위	내부화우위	입지특유우위
해외직접투자	O	O	O
라이센싱	O	X	X
해외위탁생산	O	X	O
수출	O	O	X

2) 절충이론의 한계

이상과 같은 더닝의 절충이론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까지의 이론에 비하여 일반화된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 자체가 독창적인 것이 아닌 개별이론의 종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기존의 여러 이론을 결합한 글자 그대로 절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인 것이다. 또한 무역의 일반균형과 결합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기업 활동만을 설명하고 있어 해외직접투자이론과 무역이론과의 통합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해외직접투자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시적인 경제단위인 국가 경제와의 마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제3절 해외진출에 관한 고찰

1. 해외직접투자 선행연구

1) 외국연구

Mitchell, Shaver, and Yeung(1993)는 해외진출 경험에 대한 기업의 해외진출 경험이 많을수록 해외시장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누적되어 문화적 이질성의 경영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도를 향상시키므로 해외진출의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그 정도가 높을수록 투자성과에 비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단독투자, 합작투자, 기업인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진입방식에 따른 경영성과의 차이를 분석·설명 하였다. 총비용은 필요한 자원의 확보에 소용되는 비용과 소유권 및 관리 통제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기준하여 단독투자가 가장 우선적이며 그 다음으로 합작투자, 마지막 기업인수 순으로 좋다고 하였다.

Li(1991)는 퇴출을 사용한 해외현지자회사의 합자투자와 투자성과, 기업인수간의 관계 및 단독투자를 연구하였다. 단독투자와 달리 합작투자는 합작투자 파트너간의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충돌과 특화자산의 공유에 따른 마찰로 인해 합작의 투자성과분석에서 합작투자의 실패율이 단독설립 투자보다도 훨씬 높다는 결론을 설명하면서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자가 더 좋은 투자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⁴³⁾

Christmann and Day(1999)는 4개의 다국적 기업의 37개 해외시장에 진출한 자회사들 대상으로 진출국가의 경제발전 수준, 산업구조와 기업의 전략에 따라 기업의 투자성과를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외진출국가 특성이 자회사의 경영성과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의 전략 및 산업구조의 환경과 영향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투자성과로는 주로 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결과를 분석하였다.⁴⁴⁾

43) Li, J. and S. Guisingerr(1991), "Comparative Business Failures of Foreign-Controlled Firm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22, No. 2, pp. 209-224

44) Christmann, P., D. Day(1999), "The relative influence of country conditions, industry structure, and business strategy on multinational corporation subsidiary performance". *Journal of*

Luo(1995)는 합작투자가 기업전략과 시장구조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외진출국의 영업기간이 중국에서 영업하는 합작자회사의 성공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분석하였다. 즉 중국 내 사업의 사후적 경험 및 학습효과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므로 즉, 해외진출국의 영업경험의 시간이 길수록 경영성과가 좋아진다고 파악 할 수 있다.⁴⁵⁾

Makino and Delios(1996)는 일본합작기업 중 아시아국가에 투자대상을 하여 모기업이 현지시장 경험이 풍부할수록 또는 현지국에 대한 합자투자 경영기간이 길수록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현지기업과 합자할 경우에는 모기업의 현지국 합작경험은 오히려 합자투자 경영성과에 통계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친다. 현지국의 합자투자로 영업기간의 비현지인 기업과 합작투자를 한 경우가 현지인 기업과 합작투자를 한 경우보다 정(+)의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⁴⁶⁾

Anand and Delios(1997)는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입지특유, 기업특유에 대한 연구에서 단독투자, 합작투자, 기업인수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분석 하였는데 합작투자와 인수는 현지국의 노하우나 지식, 역량 등의 학습에 용이하고 현지기업과 외국기업의 자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입지특유의 우위 및 기업특유의 우위가 높을 때는 단독투자를 우선하고 합자투자보자 위험도 줄일 수 있기에 선호하였다.⁴⁷⁾

Siripaisalpipat and Hoshino(2000)는 기업의 독점적 우위, 해외진입방식과 해외자회사의 성과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였다. 태국에 1995년부터1996년까지 진출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360건의 분석으로 모기업의 기업규모와 합작투자 경영성과와 국제화 경험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증명하고,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의 경우가 특유우위를 가진 기업의 경영성과가 더 좋고, 기업의 특유우위가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합작투자방식의 성과가 더 높다는 분석을 하였다.⁴⁸⁾

International management, No.5, pp. 241-265.

45) Luo, Y.(1995), "Business Strategy, Market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The Case of Joint Ventures in china",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Vol.35, pp. 241-264.

46) Makino, S. and A. Delios(1996), "local Knowledge Transfer and Performance Implications for Alliance Formation in Asi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27, No.5, pp. 905-927

47) Anand J. and A. Delios(1997), "Location Specificity and the Transferability of Downstream Assets to Foreign Subsidia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rd Quarter, pp. 579-598.

<표 2-5> 해외직접투자 경영성과에 대한 외국연구동향

연구자	이론	주요 내용
Mitchell, Shaver, and Yeung(1993)	독점적 우위론	해외진출 경험에 대한 기업의 해외진출 경험이 많을수록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Li(1991)	내부화 이론	합작투자가 기업전략과 시장구조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Christmann and Day(1999)	독점적 우위론	해외시장에 진출한 자회사들 대상으로 진출국가의 경제발전 수준, 산업구조와 기업의 전략에 따라 기업의 투자성과를 분석
Luo(1995)	독점적 우위론	합작투자가 기업전략과 시장구조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Makino and Delios(1996)	내부화 이론	일본합작기업 중 아시아국가에 투자대상을 하여 모 기업이 현지시장 경험과 현지국에 대한 합자투자 경영기간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Anand and Delios(1997)	절충 이론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입지특유, 기업특유에 대한 연구에서 단독투자, 합작투자, 기업인수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분석
Siripaisalpipat and Hoshino(2000)	독점적 우위론	독점적 우위가 해외진입 방식과 해외자회사와의 성과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 분석

48) Siripaisalpipat. P. and Y. Hoshino(2000), "Firm-specific advantages, entry modes, and performance of Japanese FDI in Thailand", Japan and the World Economy, Vol. 12, pp. 33-48

2) 국내연구

박상협(2017)은 베트남·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중심으로 FDI의 결정요인이 아닌 진출 이후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CEO의 역량과 준비성, 마케팅 역량과 재무관리 역량이 성장성과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설명하였다.⁴⁹⁾

방호열(2018)은 국내 발표논문들을 대상으로 한국기업의 FDI 성과결정요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하였다. 국내 3개 학술저널 사이트에서 최종 41개 논문으로 메타분석을 하여 한국기업의 FDI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R&D가 6개, 입지우위, 기업특유우위, 마케팅이 5개, 문화적 요인과 투자기간, 국제화 경험이 4개, 현지화, 최고경영자의 특성, 진출 시기 3개의 연구에서 정(+)의 효과가 있다고 결론 냈다.⁵⁰⁾

김주권(2018)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와 부가가치 기준무역 데이터의 등장으로 FDI와 무역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FDI 유출, 부가가치 데이터 수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상관관계는 전반기(2000-2005)보다 후반기(2006-2011)에서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⁵¹⁾

김영석(2020)은 브라질 FDI와 수출의 관계를 분석했다. FDI와 수출과의 관계, 수출과 경영성과의 관계, FDI의 수출유발효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 감소가 기업 내 무역 감소에 있다고 설명했으며, FDI의 수출유발효과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⁵²⁾

남대엽(2020)은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의 확대가 FDI무역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관점에서 FDI를 비제조업과 제조업으로 구분하고 수출품을 가공단계별로 분류하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시계열 데이터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들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제조업 투자보다 제조업 투자가

49) 박상협(2017), “베트남·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박사학위논문

50) 방호열(2018),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결정요인에 대한 종합적 메타분석”, 국제경영리뷰, 제22권, 제2호, pp. 141-163

51) 김주권(2018), “해외직접투자자와 무역의 상관관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동서연구 제30권 4호, pp. 157-177

52) 김영석(2020). “한국의 대브라질 해외직접투자자와 수출의 관계”,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Vol. 17, Issue 1, pp. 7-33

수출에 보다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⁵³⁾

이지수(2021)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FDI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입지요인이 기업의 동적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코트라 발간지(2018-2019 해외진출 기업 디렉토리)를 이용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79부를 회수하였고 SPSS 26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적역량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⁵⁴⁾

<표 2-6> 해외직접투자 경영성과에 대한 국내연구동향

연구자	분석방법	주요내용
박상협(2017)	우위 요인의 실증분석	해외직접투자 성과 결정요인을 투자동기 및 투자전략의 조절효과로 분석
방호열(2018)	학회지 논문 메타분석	국내 발표논문들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 성과결정요인에 대한 종합적 메타분석
김주권(2018)	수출 데이터 실증분석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상관관계를 분석
김영석(2020)	수출유발효과의 회귀분석	대브라질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변화가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
남대엽(2020)	시계열 데이터 분석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이지수(2021)	SPSS 26 통계분석	입지 요인, 기업의 역량활용 및 역량개발이 동적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53) 남대엽(2020),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기업 44권 1호, pp. 141-167

54) 이지수(2021),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 절충이론 선행연구

구본일·엄영호·전효찬(2008)은 절충이론과 순서 이론을 대변하는 설명변수들이 유의적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절충이론의 설명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목표조정모형을 통한 절충이론의 검증에서는 조정 속도가 상당히 크게 추정되어 모형에 대한 보다 확실한 지지가 가능했다. 자금부족액을 이용한 부채비율 조정모형에 대한 검증에서는 전체 표본이나 소기업 및 비재벌기업에서는 모형이 기각되지만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의 경우에는 지지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⁵⁵⁾

왕군강·권영철(2014)은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이론으로서 독점적 우위론, 내부화 우위론, 입지우위론을 통합한 Dunning(1980)의 절충이론에 기초하여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 성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⁵⁶⁾

오대혁(2015)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절충이론 중 입지요인이 중요하며, 내부화요인 중 투자비중이 중요하며, 독점적 우위요인에서는 종업원 수와 자산 규모가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⁵⁷⁾

세인쉐튼(2017)은 절충이론을 바탕으로 기업특성요인과 외국인비용, 입지요인 및 투자방식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미얀마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지나친 낙관을 지양하고, 전략적 관점에서 사전 시장조사, 현지 방문,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 의견 청취 및 미얀마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언한다.⁵⁸⁾

박성환(2017)은 여러 관점이 통합된 Dunning의 절충이론에 기반 하여, 한국 내 외국 자본 국적별로 외국투자기업 연구개발 규모에 대한 OLI 우위의 영향성을 선형 회귀모형 및 Tobit 회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⁵⁹⁾

55) 구본일·엄영호·전효찬(2008), “우리나라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14권2호, pp. 1-60

56) 왕군강·권영철(201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pp. 191-209

57) 오대혁(2015),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자와 성과”, 경영컨설팅연구, 통권 제15권, 제3호, 통권 제46호, pp. 133-142.

58) 세인쉐튼·박기륜·문계완(2017),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30권 제6호, pp. 1009-1030

59) 박성환·조현정·지일용(2017),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OLI우위 영향성 연구”, 기술혁신연구 v.24, no.4 pp. 127-158

정재휘·이태희(2019)는 기업특유우위에 해당하는 기술공급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및 기술전수능력은 기술수출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은 미친다. 절충이론에 따른 세 가지 해외진입방법(라이센싱, 상품수출, 해외직접투자) 모두가 필요하다.⁶⁰⁾

양오석·응웬반쿠앙(2020)은 기업특유 요소 관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기업들의 부채 조달 행태를 설명하는 두 가지 경쟁이론(절충이론과 순위이론)을 비교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의 강건성을 보장하기 위해 레버리지의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⁶¹⁾

<표 2-7> 절충이론에 대한 연구 동향

연구자	주요내용
구본일·엄영호·전효찬(2008)	절충이론의 설명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설명
왕군강·권영철(2014)	절충이론에 근거한 대중국투자 성과 설명
오대혁(2015)	입지요인, 투자비중, 종업원수와 자산규모가 중요
세인쉴튼(2017)	기업특성요인과 외국인비용, 입지요인 및 투자방식에 따른 효과를 설명
박성환(2017)	한국 내 외국 자본 국적별로 외국투자기업 연구개발 규모에 대한 분석
정재휘, 이태희(2019)	절충이론에 따른 세 가지 해외진입방법(라이센싱, 상품수출, 해외직접투자) 모두가 필요
양오석·응웬반쿠앙(2020)	두 가지 경쟁이론(절충이론과 순위이론)을 비교 분석

60) 정재휘·이태희(2019), “절충이론 기반의 기술수출 결정요인”, 경영컨설팅연구, 통권 제19권, 제2호, 통권 제61호, pp. 227-234

61) 양오석·응웬반쿠앙(2020), “기업의 자본구조에 대한 절충이론과 순위이론의 설명력 비교”, 무역연구, 제16권 제3호, pp. 333-355

3. 경영성과

기업의 경영활동 성과는 어느 단일 요인만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기업내부의 환경, 시장 환경, 전략, 조직 등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며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경영성과에 대한 측정지표는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재무지표, 비재무지표로 나누어진다.⁶²⁾

Kaplan and Norton(1992)은 기업의 성과달성에 있어서 과정을 중시하면서 균형성과지표를 활용한 성과측정을 제시하였다.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지표, 특히, 재무적 정보가 지니는 즉시적인 재무 자료 확보의 어려움, 상이한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비교곤란성, 시장특성과 규모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지표의 중요성이 꾸준히 인정되고 있다.⁶³⁾

Roure and Keeley(1990)는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가 급변하는 경쟁 환경 하에서 미래경쟁력을 평가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와 병행하여 비재무적 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⁴⁾

Venkatraman and Ramanujam(1986)은 재무적 지표로서 재무적 성과와 함께 비재무적 지표로서 사업성과, 즉 시장점유율, 성장률, 다각화 및 제품혁신을 들고 있으며, 아울러 주관적 지표로서 조직유효성, 즉 만족도, 근로생활의 질, 사회적 책임 등 3가지 수준에서 성과를 측정하였다.⁶⁵⁾

Stuart and Abetti(1987)은 벤처기업의 성공을 주관적 성공과 객관적 성공의 다양한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⁶⁶⁾

Lumpkin and Dess(1996)은 기업가적 지향성과 경영성과와의 관계모형 연구에서 경영성과지표로 매출액, 시장점유율, 수익성, 전반적인 성과, 이해관계자 만족도 등 다양한 개념을 도입하였다.⁶⁷⁾

62) 고봉상(2004),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3) S. Kaplan and D. P. Norton(1992), “The Balanced Scorecard—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pp. 79–71

64) J. B. Roure and R. H. Keeley(1990), “Prediction of Success in New Technology Based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5 No. 4, pp. 201–220

65) N. Venkatraman and V. Ramanujam(1986), “Measur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in Strategy Research: A Comparison of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1 No. 4, pp. 801–814

66) R. W. Stuart and P. A. Abetti(1987), “Start-Up Venture: Towards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2 No. 3, pp. 215–230

67) G. T. Lumpkin and G. G. Dess(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1 No. 1, pp. 135–172

김영진(2008)은 기업특유 우위요인, 입지특유 우위, 내부화특유 우위와 경제와 정치적 요인과 경영성과 관계연구를 분석하였는데 기업특유우위, 입지특유우위, 내부화특유우위는 경영성과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⁶⁸⁾

이장우, 이현숙(2000)은 벤처기업의 유형구분과 경영성과 간의 연구에서 성과측정 변수를 매출이익률, 총자산이익률을 지표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⁶⁹⁾

남기준(2015)은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해외직접투자 우위인 국제경험과 차별화 우위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⁷⁰⁾

박경수와 양동우(2006)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성과 영향요인 연구에서 성과측정 지표로서 매출성장률을 활용하여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중소기업에서의 재무지표는 공개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개된 통계지표를 가지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하여 비재무지표에서도 창업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매출성장비율로 측정하게 되는 것이다.⁷¹⁾

<표 2-8> 경영성과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주요내용
Kaplan & Norton(1992)	시장점유율, 현금흐름, 판매비중, 자체브랜드, 신제품출시기간
Roure & Keeley(1990)	만족도, 재무성과 지표 및 시장성지표, 창업자 주관 중요도
Venkatraman & Ramanujam(1986)	목표 달성도, 작업에 대한 만족도, 총매출액, 사업의 성공
Stuart & Abetti(1987), Lumpkin & Dess(1996)	총자본이익률
김영진(2008)	기업특유 우위, 입지특유 우위, 내부화특유 우위
이장우· 이현숙(2000)	이익증감, 매출액증감
남기준(2015)	국제경험, 차별적 우위
박경수· 양동우(2006)	투자이익률, 매출이익률, 매출액증가, 총자산이익률, 이익

68) 김영진(2008), “한국자동차부품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따른 경영성과와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69) 이장우·이현숙(2000), “벤처기업의 유형구분과 경영성과”, 벤처경영연구, 제3권 제2호, pp. 3-31

70) 남기준(2015),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1) 박경수·양동우(2006), “연구개발비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술학회지, pp. 842-864

4. 비재무적 성과

1) 비재무적 성과의 정의

비재무적 성과(ESG)란 재무적인 요소에서 드러나지 않는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계량화해 기업의 계속 경영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조어로 유엔 사회책임투자원칙(UN PRI)에서 투자 의사 결정 시 고려하도록 하는 핵심 평가 요소다. 재무제표 같은 금전적 이익 외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해 투자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등장한 기준이기도 하다. 유럽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거래소 상장 규정에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제도화하기도 했다. 재무성과 이상으로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은 유럽 국가들에서 먼저 시작됐다.

유럽지역 국가에서는 공적기구 중심으로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은 그에 따라 제품의 원료조달부터 생산·유통·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환경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도 주목받았다.

글로벌 기업들이 ESG 경영을 선언하면서 협력업체 전체로 ESG 경영 기조가 확산하였고,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ESG 관련 규제들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2030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지속경영가능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도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삼성SDI가 최초로 공개하기 시작해 2008년부터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100여 개 기업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⁷²⁾

Wernerfelt(1984)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요소에 관하여 두 가지 관점으로 제시하였는데, 먼저, 환경 및 조직 요소들과의 적합성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환경과 조직관계, 환경과 전략관계 등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기업 외부시장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관점으로 기업의 외부환경이 위협과 기회, 내부역량인 약점과 강점과의

72) <http://news.einfomax.co.kr>

관계로 기업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⁷³⁾

<표 2-9> ESG 항목별 주요 요소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기후변화	인권	뇌물 및 부패
자원고갈	현대노예	경영진 보상
물	아동근로	이사회 다양성 및 구조
공해	근로조건	정치적 로비 및 기부
삼림파괴	근로자 관계	조세전략

출처 :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경영성과와 관련하여 조직론자들은 일반적으로 조직유효성의 광범위한 개념인 조직구조, 동기유발, 집단역학, 직무충실화 등과 같은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략 연구자들은 기업의 수익성이 나 성장성과 같은 재무적 지표를 경영성과의 측정 지표로 사용하여 왔다.⁷⁴⁾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는 일반적으로 경영성과의 판단 기준이 된다. 재무적성과는 전통적 성과측정 방법으로 기업의 영업결과의 평가와 더불어 사업의 성과평가지표이다. 기업의 단기 성과측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수익성은 이익, 판매이익률, 투자이익률 등 다양한 지표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지만 그 중에도 투자 이익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⁷⁵⁾ 즉, 비재무적 성과란 특정업무수행에 대한 가시적 결과를 의미하며 기업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나타나게 되는 전반적인 고객 서비스와 만족에 대한 기업 운영결과로 정의할 수 있다.

비재무적 경영성과는 경영성과평가의 결과로서 제공되는 정보들이 계량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표를 의미하며, 경영성과 가치들을 마케팅활동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 지 평가하는 성과지표로 제품생산관련정보, 경쟁시장정보 등 무형적인 비계량을 측정하는 것이다.⁷⁶⁾비재무적인 관점에서 지식과 네트워크의 활용으로 향

73) Birger Wernerfelt(1984),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5, No. 2. (Apr.-Jun.), pp. 171-180

74) Venkatraman, N. and Ramanujam, V. (1986), "Measur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in Strategy Research: A Comparison of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pp. 801-814

75) 정찬삼(2011), "골프장 내부마케팅 요인과 직무태도, 경영성과간의 관계",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6) 전인오·안운석(2016), "창업마케팅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11(3), pp. 97-109

후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구성원의 자질과 능력, 고객 및 공급자와의 긴밀한 관계의 형성, 외부지식의 활용 능력 등을 반영한 종합적 형태가 경영성과라고 하였다.⁷⁷⁾

경영성과 지표에서 재무적 지표는 안정적 산업에서 단기적 지표로서는 유용할 수 있으나 환경변화가 심한 산업이거나 장기적 흐름으로 지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재무적 지표도 평가지표에 포함해야 한다.⁷⁸⁾ Govindarajan(1984)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성 및 지표에서 재무적성과는 단기성과와 관련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비재무적 경영성과는 장기성과와 관련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⁷⁹⁾ Venkatraman과 Ramanujan(1986)의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를 기업의 경영성과로 구분하고, 기업에 있어서 재무적 성과보다 비재무적 경영성과의 중요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⁸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장기적 측면의 경영전략 수립과 강화를 위하여 재무적 지표뿐만이 아닌 비재무적 지표 역시 성과측정을 진행하여 기업의 미래적인 가치를 폭 넓게 고려하여 평가해야한다. 즉, 기업의 재무적 지표만으로 기업의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기업들의 장기적 경영전략 수립과 강화를 위하여 비재무적 지표를 통한 성과측정이 필요하다. 성과측정에 있어 기업은 객관적 지표보다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⁸¹⁾

이것은 경영 초기에 짧은 업력으로는 재무적 측정이 어려우며 정성적 평가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특정한 이유가 있으나 연구목적에 따라서 비재무적 성과 측정은 성과변수를 다양하게 측정하며, 재무적 성과의 사후 측정에 의한 단점으로 인하여 오히려 비재무적성과가 성과개념을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⁸²⁾ 조직의 성과측정과 통제에 있어서는 재무적 중심의 지표인 계량적 지표와 비재무적 중심인

77) 박인수·곽영대(2019), “외식기업의 관계혜택이 품질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패밀리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1(10), pp. 303-319

78) 이종덕(2015), “중소기업의 핵심역량과 경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9) Govindarajan, V. (1984), “Business unit strategy, managerial characteristics and business unit effectiveness at strategy implement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7, pp. 25-41

80) Venkatraman, N. and Ramanujam, V. (1986), “Measur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in Strategy Research: A Comparison of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pp. 801-814.

81) 주원식(2014), “소상공인의 소셜커머스 활용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소셜 커머스 회사와의 관계와 창업가정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2) 주원식(2014). 전거서

비계량적 지표를 적절히 배합되어야 한다.⁸³⁾ 또한, 정량적 비율 분석 지표의 한계에 서 벗어나고, 정성적 역량 측정 지표인 경영 성과율(ROM)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경영관리 측면에서 과거 재무적 지표 중심의 경영성과 측정에 비재무적 지표중심의 경영성과 측정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의 미래 성장가치를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⁸⁴⁾

따라서 비재무적 성과지표는 정성적이며, 과정 중심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장기적 측정지표라 할 수 있다.⁸⁵⁾

<표 2-10> 비재무적 성과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주요내용
Wernerfelt(1984)	환경 및 조직 요소들과의 적합성, 기업 외부시장 요인들의 중요성
Goodman & Pennings(1977)	조직구조, 동기유발, 집단역학, 직무충실화 등과 같은 요인에 초점
Govindarajan(1984)	비재무적 경영성과는 장기성과와 관련한 개념
Venkatraman & Ramanujan(1986)	재무적 성과보다 비재무적 경영성과의 중요성이 더 높다
주원식(2014)	장기적 경영전략 수립과 강화를 위하여 비재무적 지표를 통한 성과측정
윤성임(2018)	비재무적 지표중심의 경영성과 측정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평가에 반영
정종희(2015)	비재무적 성과지표는 정성적이며, 과정 중심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장기적 측정지표

83) 주원식(2014). 전개서

84) 윤성임(2018). “소상공인의 긍정심리자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SNS 활용정도 중심으로”,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 103-107

85) 정종희(2015).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부지원프로그램의 조절 효과”,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제 3 장 베트남 해외진출 동향 및 제조업 현황

제1절 베트남 내 해외직접투자 현황

1. 우리나라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현황

2021년 9월 누계 기준으로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여전히 제조업이 이끌어 가고 있다. <표 3-1>에서 누계 기준 제조업에 집중(74.0%)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제조업 투자비율은 평균을 상회하나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는 투자가 부진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 1988~2021년 9월 누계, 산업별 한국기업 투자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개)

분야	프로젝트 수	투자금액	산업비중
제조 가공업	4,543	54,594.8	74.0%
부동산 경영업	215	9,742.5	13.2%
건설업	916	2,851.1	3.9%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	1,373	1,499.2	2.0%
물류, 운송업	181	1,034.7	1.4%
호텔 요식업	373	1,020.3	1.4%
전문과학 기술업	643	723.6	1.0%
기타	921	2,296.4	3.1%
총계	9,165	73,762.9	100%

출처 : 베트남 투자청(SCIC), 2021.9.20. 기준

2019년 12월에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조환경 악화 및 글로벌 금

용시장 불안 등의 문제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베트남 시장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꾸준히 유지하여 '21년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9,165개의 프로젝트에, 737.6억 달러 투자로 누계 기준 여전히 1위 투자국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표 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2> 최근 5년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단위 : 백만 달러, 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9월
연도별 한국 총투자	투자 금액	7,965.2 (1위)	8,719.9 (2위)	7,212.0 (2위)	8,344.4 (1위)	3,949.1 (2위)	2,923.1 (2위)
	투자 건수	2,702 (1위)	2,642 (1위)	3,345 (1위)	4,908 (1위)	2,786	1,455 (1위)
한국투 자 누계	투자 금액	50,553.5	57,861.7	62,567.0	68,103.3	70,645.1	73,762.9 (1위)
	투자 건수	5,773	6,549	7,459	8,504	8,983	9,165 (1위)
총 FDI 누계	투자 금액	293,700. 4	319,613. 1	340,159. 4	363,309. 7	384,044. 2	403,188. 5
	투자 건수	22,594	24,803	27,353	30,943	33,070	34,141

주 : 총투자는 신규, 증액투자+주식 및 지분투자(M&A) 포함(2016년부터 발표), 총 누계자료에는 신규+증자투자만 반영, '21년 9월 증감율은 전년 동기대비(2021.9.20.일 기준)

출처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 외국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현황

외국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는 2020년 한 해 FDI 수출액이 전년 대비 11.8% 증가한 약 2,033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72% 비중을 차지하며 베트남 대외교역에 있어서 FDI 기업의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과 컴퓨터, 전자기기 및 부품의 수출액 중 FDI 기업의 수출비중은 각 97.7%, 96.8%로 FDI 기업이 두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실적을 견인하였다. 이는 <표 3-3>과 같다.

<표 3-3> 베트남 내 FDI 기업의 대외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1~3분기	16~20 CAGR ⁸⁶⁾ (%)
수출액 (증감률)	123,874.4 (12.0)	152,188.7 (22.9)	171,766.9 (12.9)	179,199.3 (4.3)	202,886.2 (13.2)	176,566.6 (23.1)	13.1
수입액 (증감률)	102,436.0 (5.4)	126,372.8 (23.4)	141,939.0 (12.3)	144,641.7 (1.9)	169,014.2 (16.8)	159,282.3 (33.9)	13.3
총 교역액 (증감률)	226,310.4 (8.9)	278,561.6 (23.1)	313,705.9 (12.6)	380,200.0 (7.2)	371,873.4 (-2.2)	335,848.9	13.2
무역 수치	21,438.4	25,815.9	29,827.9	35,850.0	33,845.0	17,284.3	12.6

출처 : 베트남 관세총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베트남 외국인 투자액은 2021년 1~9월, 베트남 FDI 총액 22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규+증액 투자 프로젝트 건수는 31.1% 감소하였고 투자액은 22.3%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9년 1~9월 베트남 FDI 총액 261.6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표 3-4>과 같다.

<표 3-4> 연도별 외국인 총 투자액

(단위 : 백만 달러,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9월
투자금액	26,890.5	37,100.6	35,465.5	38,951.7	28,530.1	22,145.9
증감률 (전년대비)	-	37.9%	4.4%	9.8%	-24.9%	4.4%
투자 건수	9,832	9,000	10,711	16,227	9,804	3,970
증감률 (전년대비)	-	-8.4%	19.0%	51.4%	-35.0%	-40.4%

출처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1. 9. 20. 기준. *21년 증감률은 '20년 동기 대비 기준

86)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반환(수익)을 제공하는 등비수열 비율에 대한 투자 용어이다

국가별 투자현황 중 우리나라를 제외 하고 베트남 투자액 상위 국가들로서 싱가포르를 먼저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2020년, 2021년 9월까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다.

싱가포르는 조세 규정상 장점이 있는 만큼 우회 투자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싱가포르 기업투자보다는 제3국 기업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하는 경우가 다수이다.⁸⁷⁾

<표 3-5> 싱가포르 '20/'21년 투자변동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건)

국가명	신규 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매입		총 투자액
	프로젝트 수	투자 금액	프로젝트 수	투자 금액	프로젝트 수	투자 금액	
2020. 1~9월	173	4,652.4	62	548.1	392	1,567.7	6,768.3
2021. 1~9월	146	4,984.6	62	600.1	221	697.8	6,282.6
증감률 (%)	-15.6%	7.1%	0.0%	9.5%	-43.6%	-55.5%	-7.2%

주 : 기준점 '19. 9월=100%

출처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1. 9. 20. 기준

최근 베트남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고 있는 중국은, 투자액으로는 신규 및 증액투자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투자 프로젝트 수는 신규(-43.9%), 증액(-17.3%) 감소하였다. 이는 베트남 투자 누계 기준 한국의 1/3수준(전체 투자국 중6위)에 그치나 최근 3년간 대 베트남 투자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보다 미·중 무역 전쟁이 중국 제조 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국 수출장벽 우회 및 유럽-베트남 FTA 활용을 위한 투자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87) 싱가포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최저0~최고17%)

<표 3-6> 중국 '20년/'21년 투자변동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건)

국가명	신규 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매입		총 투자액
	프로젝트 수	투자 금액	프로젝트 수	투자 금액	프로젝트 수	투자 금액	
2020. 1~9월	271	1,079.7	98	449.8	748	347.3	1,876.9
2021. 1~9월	152	1,436.4	81	825.5	335	144.2	2,406.1
증감률 (%)	-43.9%	33.0%	-17.3%	83.5%	-55.2%	-58.5%	28.2%

주 : 기준점 '19. 9월=100%

출처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1. 9. 20. 기준

한때 왕성한 투자를 했던 일본은 전년 동기 대비 대 베트남 투자액은 418%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제조업 투자 건수는 4건에 불과하고 투자비율도 하락중이다.

<표 3-7> 일본 '20년/'21년 투자변동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건)

국가명	신규 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매입		총 투자액
	프로젝트 수	투자 금액	프로젝트 수	투자 금액	프로젝트 수	투자 금액	
2020. 1~9월	209	463.2	100	354.8	448	912.1	1,730.2
2021. 1~9월	131	2,403.6	91	683.5	155	178.8	3,266.0
증감률 (%)	-37.3%	418.9%	-9.0%	92.6%	-65.4%	-80.4%	88.8%

주 : 기준점 '19. 9월=100%

출처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1. 9. 20. 기준

대만은 대베트남 누적투자 순위는 4위나 지난 2019년 이후 투자 감소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조업 주요 투자 분야는 전자부

품 및 섬유 봉제 기업들이다.

<표 3-8> 대만 '20년/'21년 투자변동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건)

국가명	신규 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매입		총 투자액
	프로젝트 수	투자 금액	프로젝트 수	투자 금액	프로젝트 수	투자 금액	
2020. 1~9월	94	852.4	63	180.4	377	287.5	1,320.3
2021.1~9월	46	265.2	42	713.5	154	123.4	1,102.2
증감률 (%)	-51.1%	-68.9%	-33.3%	295.5%	-59.2%	-57.1%	-16.5%

주 : 기준점 '19. 9월=100%

출처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1. 9. 20. 기준

홍콩은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2019년 상반기부터 제조업 분야에 투자 규모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전자업종 및 플라스틱 가공분야가 제조업 투자를 이끌고 있다.

<표 3-9> 홍콩 '20년/'21년 투자변동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건)

국가명	신규 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매입		총 투자액
	프로젝트 수	투자 금액	프로젝트 수	투자 금액	프로젝트 수	투자 금액	
2020. 1~9월	168	876.1	69	187.5	97	158.3	1,221.8
2021. 1~9월	93	1,486.3	69	280.5	58	157.2	1,924.0
증감률 (%)	-44.6%	-69.6%	0.0%	49.6%	-40.2%	-0.7%	57.5%

주 : 기준점 '19. 9월=100%

출처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1. 9. 20. 기준

제2절 베트남 시장의 현황

1. 코로나 이전 투자환경

베트남은 EU-베트남 FTA와 영국-베트남 FTA 발효를 통해 유럽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베트남의 FTA 추진 현황은 <표 3-10>과 같다.

<표 3-10> 베트남의 FTA 추진 현황

구분	발효중	발효 예정 (타결·서명)	협상 중	검토 중
ASEAN 차원	AIFTA(인도, '10. 1. 발효) AANZFTA(호주/뉴질랜드, '10. 1. 발효) AKFTA(한국, '07. 6. 발효) AJCEP(일본, '8. 12. 발효) ACFTA(중국, '05. 7. 발효) AHKFTA(홍콩, '19. 6. 발효)	RCEP	-	-
베트남 단독	AEC(아세안경제공동체, '15. 12. 출범) VCFTA(칠레, '14. 1. 발효) VKFTA(한국, '15. 12. 발효) VA-EAEU FTA(유라시아경제연합, '16. 10. 발효) EVFTA(EU, '20. 8. 발효) UKVFTA(영국, '21. 5. 발효)	-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VIFTA(이스라엘)	FTAAP

출처 :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 WTO센터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ASEAN⁸⁸⁾+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FTA협정이다.⁸⁹⁾

이로서 베트남은 아시아·대양주 내 핵심 생산거점으로서 역할과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베트남 FDI 투자국 순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베트남과의 교역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⁹⁰⁾

RCEP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 3-11>과 같다.

<표 3-11>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개요

구분	주요 내용
상품무역	농수산물·공산물의 관세 철폐 기본원칙 및 수준 등 규정 베트남 수입관세 철폐율 89.6% 아세안 국가 대베트남 관세 철폐율 85.9% 기타 국가 대베트남 관세 철폐율 92%
서비스무역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포함 ASEAN의 문화 콘텐츠 분야 및 유통 분야 개방 금융서비스 양허 방식 및 주요 원칙 통신서비스의 접근, 이용 및 공급자 의무 등 규정 전문직 부여, 자격, 등록 등 인정 요건 규정
원산지 규정	개별 FTA가 아닌 역내 단일 원산지기준 마련 원산지증명 및 신고절차 간소화 누적 원산지 규정 통관 시 수출, 수입, 반송 절차 규정
전자상거래	디지털 제품의 적용 범위, 관세 부과 정도 등 규정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보장 및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미부과 명시
투자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이행 요건 부과 금지 등 보호 규정 송금 자유와 보장 등 외국인투자 및 보호 관련 의무 규정
지식재산권	상표 선점을 위한 악의적 출원에 대한 거절 및 등록 취소 출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제품의 세부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보장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위한 지원 규정

출처 :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88) ASEAN에 가입되어 있는 10개국은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이다

89)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명국의 무역 규모는 5조 6천억 달러(약 6,656조 원), 국내총생산(GDP)은 26조 달러(약 3경 901조 원), 인구는 22억 7천만 명에 달함(전 세계 대비 각 31.9%, 30.8%, 29.7%에 해당)

90)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이후 8년만인 2020년 11월 협정문 서명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이은 중국발 코로나19로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가 확대되면서 생산거점과 대체 공급처를 찾는 글로벌 기업의 움직임이 가속화 되면서 베트남이 대표 수혜지역이 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을 이전했거나 이전 계획을 발표한 기업 애플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삼성, LG등 다수의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 확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기업들도 베트남 해외직접투자에 선제적 투자와 기존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3-12> 미-중 무역분쟁 이후 탈(脫) 중국 기업 현황('21년 10월 기준)

기업명		생산 제품	본사	생산 이전 계획 국가	비고
삼성		스마트폰, 가전	한국	중국 →베트남	이전완료 및 생산중 '21년 9월 삼성(박닌), LG 디스플레이(하이퐁) 투자 증액 결정
LG	가전				
Lovesac	가구				
Google(협력사)	스마트폰 pixel4a	미국	중국→베트남		'20년 4월 이전 완료 및 생산 중
HP	데스크탑 및 노트북				-
Amazon	Echo 스피커, Kindle 전자책				'20년 하반기부터 베트남 생산 예정
Brooks Sports	신발				호치민으로 이전 완료
Microsoft	Surface(노트북, 태블릿 PC 제품군)				'20년 하반기부터 베트남 생산 중
나이키	신발 및 스포츠용품			중국 공장 축소 후 베트남 공장 증설 계획	50%↑ 의류 생산 중, 생산 라인 증설 예정 베트남의 코로나 19 4차유행으로 인하여 베트남 생산 일부 축소
Dell	데스크탑 및 노트북			중국→베트남, 대만, 필리핀 분산이전	공장 건설중
Apple iPhone	고에르텍 비나			중국	중국→베트남

협력사	럭스세어 ICT(Wistron 인수합병사)	Airpods, Airpods Pro	대만		'20년 9월 생산 시작
	Inventec	Airpods			공장 건설중
	Pegatron	아이폰 조립			Prgatron 1 이전 완료 Pegatron 2 건설 중 Pegatron 3 2027 완공예정
	Foxconn	아이폰 조립			'20년 말 이전완료
Panasonic	전자제품	일본	태국→베트남	'21년 10월13일부터 빈즈영공장 생산 시작	
Nintendo	Switch 게임기		중국→베트남	'20년 11월 샤프 베트남 공장에 닌텐도 스위치 생산라인 추가	
Sharp	LCD 디스플레이		호치민 신규 건립	'20년 11월 생산 시작	
	컴퓨터		대만→베트남		
Kyosera	프린터		중국→베트남	'18년 3월 프린터 생산시작, '19년 창고 증설	
Asics	신발 및 스포츠 용품		중국→베트남	'20년 기준 베트남에 37개 아식스신발·의류·부자재 생산 및 조립 협력사 존재	
Citizen Watch	시계		중국→태국	하이퐁 이전 완료 생산중	
Casio	시계			-	

출처 : Asia Nikkei Review, JETRO, CNBC, REUTERS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2. 코로나 시대 투자환경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베트남 역시 투자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팬데믹 이전 베트남은 견고한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역대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률(-6.17%)을 기록했다.

이로 인한 베트남의 GDP 성장률⁹¹⁾은 <표 3-13>과 같다.

플러스 성장을 위해서는 코로나19의 진정과 빠른 경제회복이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

<표 3-13> 베트남 3분기 GDP 성장률 현황(2017~2021)

(단위 :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성장률	7.43	6.90	7.50	2.79	-6.17

출처 : 베트남 통계청(GSO),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기관들은 2021년 베트남 경제성장률⁹²⁾ 목표치를 일제히 0.9%p~2.0%p로 하향 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표 3-14>와 같다.

<표 3-14> 주요 경제 기관의 2021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동향

(단위 : %)

기관	기존 전망치	수정 전망치 (‘21년 4~5월 발표)	재수정 전망치 (‘21년 9~10월 발표)
국제통화기금(IMF)	6.5	-	3.8(△2.7)
세계은행(WB)	6.8	4.8(△2.0p)	4.8(-)
아시아개발은행 (ADB)	6.7	5.8(△0.9p)	3.8(△2.0)
스탠다드차타드 (Standard Chartered)	6.5	4.7(△1.8p)	2.7(△2.0)

출처 : 기관별 발간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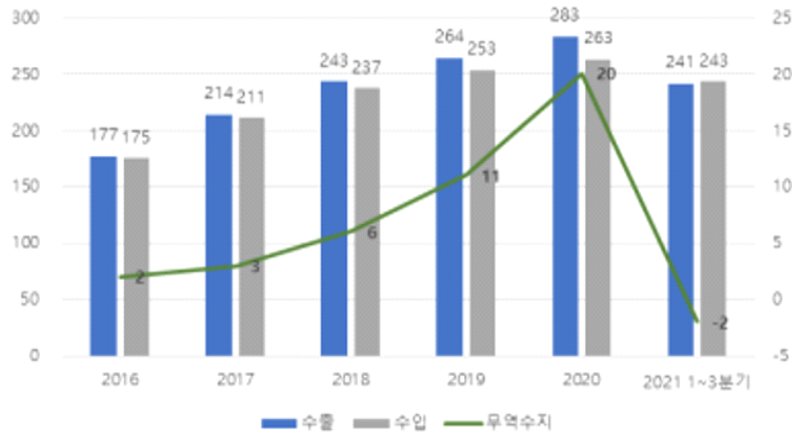
91)Arbatli(2011) GDP 성장률은 어떤 국가의 경제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투자기회의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에 더 많은 해외직접투자가 된다

92)Bayraktar(2013)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시장규모의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GDP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무역수지 역시 2020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 적자로 전환하였다.

<그림 3-1> 베트남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 십억 달러)



출처 : 베트남 관세총국

경제 관련 모든 지표가 하락하는 가운데 베트남의 실업률 또한 2019년까지 꾸준히 하락하다가 2020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2021년 3.22%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3-15> 베트남 실업률 현황

(단위 :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업률(%)	2.21	2	1.98	2.48	3.22

출처 : KOTRA 홈페이지

이에 베트남은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정책을 <표 3-16>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표 3-16> 베트남 정부에서 실시한 주요 경기 부양책(2020-2021)

	경기 부양책	법령	지원 규모	지원시기
1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토지세 감면	Decree No.52/2021/ND-CP	50억 달러	2021
2	항공업계 유류세 미 환경세 30%감면	Resolution No. 1148/2020/UBTVQ H14	N/A	2021
3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기업 및 개인에게 받는 수수료 및 요금30개 10-50%로 할인	Circular No. 47/2021/TT-BTC	4,350만 달러	2021
4	전기세 감면 (총 3차)	3th: Resolution No. 55/NQ-CP 4th: Resolution No. 83/NQ-CP 5th: Resolution No. 97/NQ-CP	2억 220만 달러	2021
5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 및 직원 지원	Resolution No. 68/NQ-CP	11억 달러	2021-2022
6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실업 보험금 지원	Resolution No. 116/NQ-CP	3억 4,780만 달러	2021-2022

출처 : 각 법령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3. 베트남 시장 환경

1) 외국인투자신고절차⁹³⁾

베트남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법인 소재 예정지 관할 기획투자국(DPI) 또는 공단관리위원회(법인 소재 예정지가 공단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투자등록증명서(IRC)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해당 지역 기획투자국에서 기업등록증명서(ERC)를 발급받으면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법무법인 또는 컨설팅 업체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행정 대행 위임장이 추가로 요구된다. 또한, 특정 업종 또는 투자지역 인허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법인세 감면

베트남의 법인세 기본세율은 20%이다. 단,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사업 등 천연자원⁹⁴⁾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32~50%의 법인세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 법인세 우대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세율은 10%, 15%, 17% 세 가지가 있으며, 투자 지역 및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적용세율과 적용 기간이 다르다. 참고로, 법인세 우대 기간은 달리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기산된다.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은 투자분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통상 공단에 신규로 설립되는 제조법인은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최대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최대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공단이 사회-경제 우수지역(1급지 도시지역)에 속하면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사업 개시 후 3년간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4년째부터 법인세 면제 및 감면 기간의 기산을 시작한다.

3) 수입 관세 면제⁹⁵⁾

투자인센티브 적용대상 프로젝트의 회사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기계 및 장비 또는

93)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01/2021/ND-CP

94) Chang, S. -C. (2014)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국적 기업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투자를 할 것이다

95) 수출입법 107/2016/QH13

특정 용도의 운송수단 및 건설자재,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자재 및 물자, 부품 등 해당 물품이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관세 면제 대상이 된다.

4) 토지사용료 면제 및 감면⁹⁶⁾

투자 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는 토지사용료, 임대료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조건부 투자허용 업종⁹⁷⁾

조건부 투자허용 업종은 베트남 국방, 안보, 사회 질서, 도덕, 국민 보건 등의 이유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총 227개가 해당한다. 유통, 식음료, 부동산사업 등 서비스업을 비롯해 일부 민감한 제조업도 조건부 투자허용 분야에 속해있으며, 투자법에 의하면 각 사업투자 조건은 국가 기업등록 정보 포털 상에 등재되어야 한다. 단, 각 지방성 마다 허가 요건이 다른 경우도 빈번하므로 투자 대상 사업이 이 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기획투자국(DPI) 문의하거나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과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투자 금지 분야

투자 금지 분야로는 투자법 부록 1, 2에 명기된 각 마약 물질, 화학물질 생산·광물 사업, 투자법 부록 3에 명기된 멸종위기 야생 식물·동물 또는 해양 동물 취급 사업, 매음(賣淫)·매춘 사업, 장기·인신 매매, 인간의 무성 생식과 관련된 사업 활동, 연화(폭죽) 사업, 사채업 등이 있다.

7) 총리 또는 각 지방성 인민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한 분야

특별 허가가 필요한 산업으로서 산간지역에서 1만 명 이상, 기타 각 지역에서 2만 명 이상의 이주가 필요한 투자 사업, 신공항의 건설 및 운영사업, 국가항만의 건설 및 운영사업, 석유가스 가공 사업, 도박, 카지노 사업, 판매, 임대 목적의 주택 건설 투자사업(2개 이상 지방성 인민위원회의 투자 승인이 필요한 사업),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국방,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공단, 수출 가공공단, 경제특구 인프

96) 토지법 45/2013/QH13

97) 투자법 61/2020/QH14

라⁹⁸⁾ 개발사업, 골프장 건설 및 운영,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 원거리 통신 서비스, 산림조성, 출판·신문·잡지, 이외에 투자법 규정에 따른 기타 프로젝트가 있다.

4. 투자입지여건

1) 경제특구

경제특구(EZ, Economic Zone)는 투자유치, 지역사회경제발전, 국방 안보 등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해안경제특구와 국경경제특구로 구분된다. 베트남에는 2022년 5월 기준 19개 해안경제특구와 28개 국경경제특구가 계획·조성·운영되고 있으며, 해안경제특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베트남 중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 수출 가공공단

수출 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은 수출품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에 특화된 공단으로 입주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출 가공공단 내 기업은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으로 구분된다. 수출가공기업이 제조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 기계장치에 대한 수입관세는 면제되며, 매입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로,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일반 산업공단에서도 수출가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3) 산업단지 (공단)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전국 산업단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335개 산업단지(총면적 97,840ha)가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그 중 260개 산업단지가 운영 중이다. 산업단지 총 면적의 53.5%에 해당하는 52,344ha는 토지 임대료가 완료되었으며, 75개 산업단지는 인프라 투자가 진행 중이다.

98)ConTractor et al.(2021) 다국적 기업은 인프라가 나쁜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한다

<표 3-17> 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홈페이지	비고
바우방 공단	20,000,000m ²	빈증	110달러/m ² /잔여 토지사용권 기간	www.bec amex.com .vn	소규모부지(1 ha규모) 분양가능
Deep C공단	16,830,000m ²	하이퐁,꽝닌	95~135달러/m ² / 잔여 토지 사용권 기간	www,dee pc.vn	
푸미3공 단	8,000,000m ²	바이라-붕 따우	160달러/m ² /잔여 토지사용권기간	http://ww w.phumy 3sip.com/	
키주나 공단	122,440m ²	롱안	4.6~7달러/m ² 기성공장 임대	https://w ww.kizun a.vn/ko	
VSIP 3단지	10,000,000m ²	빈증	130달러/m ² /잔여 토지사용권 기간	https://w ww.vsip.c om.vn/	

출처 : 코트라 홈페이지 국가지역정보

<표 3-18> 주요 지역별 여건

지역	면적	인구	주요 산업	특징	비고
하노이	3,359km ²	809만3천명	중공업 및 경공업, 부동산 및 건설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	베트남의 수도로 최근 남부균형 발전계획 하에 하이퐁과 함께 급속히 성장중	삼성, 경남, 대우, VMEP, 캐논, YAMAHA, Panasonic등
호치민시	2,061km ²	903만8천명	중공업 및 경공업, 부동산 및 건설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	베트남 최대의 남부도시, 경제 중심지	포스코, 삼성전자, GS, 롯데, 대원, CJ, Intel, 코카콜라, 이마트, 하이네켄, 태광산업 등
다낭	1,285km ²	114만1천명	중공업 및 경공업, 부동산 및 건설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	베트남 중부의 최대 도시이자 관광 중심지	Universal Alloy Corporation, Yamato Sewing Company, 텐티움, 롯데, 팬코, 대원, 대량등
동나이	5,863km ²	311만3천명	중공업 및 경공업, 화학공업, 전자 산업 등	베트남 최대 산업공단 밀집지역으로 상당 수 제조기업 상주	태광, 효성, 창신, 화승, LG, Cargill, Ajinomoto, Shisheido, 포스코 등
하이퐁	1,562km ²	203만3천명	중공업 및 경공업, 선박 및 운송	베트남 제 3의 도시로 북부 최대 항구인 하이퐁항 위치	LG, GE, Nomura, VinaSteel
빈중	2,695km ²	242만6천명	경공업(섬유/봉 제), 물류	베트남 남부 한국, 일본, 대만등 외국인 투자기업 최다 진출 지역	코오롱, 오리온, 레고 등
바리아- 붕따우	1,989km ²	114만8천명	중공업, 석유/화학	베트남 남부 석유생산지 인근 지방성으로 철강, 석유/화학업종 밀집 지역	원일특강, 효성화학, 포스코, 고려아연 등

출처 : KOTRA 홈페이지 저자 재작성

5. 투자 진출 형태

1) 법인

외국인 투자자의 현지법인은 주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다.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베트남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져 손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설립할 수 있는 형태는 주식회사와 1인 및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가 있으며, 개인사업자 또는 합명회사 등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돼 있지 않다.

2) 지사

지사는 일종의 현지 사무소로 독립된 법적 주체가 아니라 한국의 모회사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편의상 마련한 일종의 사무실이다. 실무상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사 설립은 매우 제한적이며 금융기관, 항공사에 한하여 허가를 내주고 있다.

3)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는 직접적인 회사의 영업활동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개념으로 단순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통상 지방성의 산업무역국(DoIT)에서 인허가를 내어주고 있으나 교육기관, 무역진흥업종 등 특수한 경우 담당 중앙부처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참고로, 베트남의 대표사무소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외 계약이 필요할 경우 모회사/본사가 당사자가 되어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6. 투자 진출시 유의 사항

1) 투자위험도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021년 8월 기준으로 총 3만 4,072건, US\$ 4,006억 달러이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기업들의 공급선 다변화 전략과 베트남의 EVFTA, CPTPP, RCE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로 對베트남 투자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2021년 8월 기준 투자건수 1,135건, 투자금액 US\$ 191억이 유입되어 여전히 견실한 투자 흐름을 보이고 있다.

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베트남 노동법은 최저임금은 월, 시간을 기준으로 지역이나 산업 분야에 따라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베트남 정부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만 공포하고 있다.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근로자 생활고 완화를 목적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을 7월부터 평균 6% 인상할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월 최저 임금은 325만동~486만동으로 늘어나게 된다. 베트남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2년마다 이뤄지며 최종 승인은 총리의 몫이다.

(2) 외투 기업의 사업영역 제한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 가능한 사업영역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투자법⁹⁹⁾은 모든 시장 영역에서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투자를 진행하기에 앞서 투자하고자 하시는 사업 영역이 베트남 내 허용 가능한 부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투자 제한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자법 제9조3항에 따른 방식으로 각 산

99)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 제9조2항은 베트남 정부는 a) 시장접근을 불허하는 산업 또는 업종 b) 조건부 시장의 산업 업종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3항은 이러한 제한 방식으로 a) 회사 내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비율 b) 투자형식 c) 투자활동 범위 d) 투자자의 능력 e) 그 외 기타 관할 관청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업별, 업종별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소유지분비율이 제한된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즉 어떤 업종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비율이 5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거나, 반드시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회사로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류업의 경우 일반 포워딩, 창고업 등은 100% 투자가 허용된 분야이나, 트럭킹, 해운, 통관서비스 등은 투자제한이 있다.

7. 회사 유형

1) 주식회사

한국과 달리 3인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하며 이사회를 필수로 두고 주식양도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추후 상장이 기본원칙이므로 운영 관련(특히 재무) 사안들이 정확히 기재·공시되도록 하는 규정들이 많다.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의결정족수는 주주총회 51%(특별결의의 경우 65%)를 기준으로 한다. 2015년 7월 1일 이전 구 기업법 하에서 의결정족수는 각 65%, 75%였으나 완화됐다.

2) 유한책임회사

1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설립 및 운영에서 각종 서류작업 및 운영 방식이 간단하다. 내부의사결정기관과 절차를 투자자의 뜻대로 정해 정관에 기입할 수 있다. 회계나 세무적인 측면에서 1인 독자운영을 전제하므로 정부의 입장에서라도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2인에서 50인인 경우 설립 가능한 회사로 법률적으로는 주로 소규모 합작회사나 지인들끼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유용한 형태이다. 내부운영규칙이나 의사결정기관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보다 대외 공시규정이 완화돼 있다. 다만 최고 의결기관은 항상 투자자의 모임인 사원총회이며 정관 자본의 65% 이상 출석 및 출석한 정관 자본의 65%(일반결의) 또는 75%(특수결의)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의결권의 과반수 확보만으로는 경영권 확보 측면에서는 불완전하다. 다만 정관으로 의결권 조절은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지분의 양도가 사원들 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제가 있고 그 절차가 쉽지 않다. 지분 양도 시 기존 사원에게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매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기존 사원 우선 인수권 제도가 있다. 기존 사원의 우선 인수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관에 기존 사원에 제시한 조건(양도금액 등)보다 좋은 조건으로 타에 매각할 수 없도록 정하기도 한다.

3) 개인사업자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8. 금융·외환·자금조달

1) 외환 제도 개요

베트남은 외환 자금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외환 관리법을 제정해 외환을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의 외환 관리의 주요 목적은 외환 자금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 계획 수립 시 국가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외자 자금을 투입, 국가에 필요한 물자 수입을 보장하며 국내 수급 상황을 원활히 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건설 및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외화 자금의 수입원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무역수지 안전을 피할 뿐만 아니라 외화 통제를 통해 외화 낭비를 막고 국내의 화폐 유통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외환은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SBV)이 관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은행이 마련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휴대 반입하는 미 달러 5000 USD 이상, 베트남 동 1,500만 VND 상당액 이상 외화, 귀금속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금액, 물건에 한해서만 재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2) 외환 규제

베트남 내의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베트남 동화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 관례에 의하면 계약서상의 동화와 미 달러화의 병기도 과태료 대상이며, 달러화 표기 계약서는 계약 효력 자체까지 문제될 수 있다.

외환거래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신용기관 및 외환서비스 제공을 승인받은 기관과의 거래, 국내 조직의 내부적 외환 전신송금, 거주자들의 대베트남 해외투자 수행을 위한 외환 형태로 자본 기여, 거주자들의 수출입 계약 위탁을 위한 외환 전신송금, 국내 및 해외 계약자들의 투자자들 또는 계약 총괄자의 비용 지불과 거래 지출 및 해외 송금을 위한 전신송금 수령, 보험 구매자들이 송신한 외환 형태의 전산 송금 수령, 면세품 관련 비즈니스 및 국경, 세관 보세창고 관련 서비스 제공 비용 수령, 세관 보세창고와 국경의 세관 및 경찰서의 화폐, 입국/출국 비자 및 서비스 제공 요금 수령, 재외공관 및 영사관

의 출입국 비자 및 다른 종류의 요금 수령, 외환으로 지급된 외국인의 급여, 보너스 및 용돈 수령, 비거주자들 간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을 위한 자금 전산 송신, 베트남 국영 은행장의 허가를 받은 기타 필수적인 경우이다.

외국 투자 기업은 다음의 경우 납세 증명을 비롯한 적법한 절차 이행 후 배당 송금할 수 있다.

기업 경영 결과 얻은 이윤, 서비스 제공, 기술 제공 등으로 획득한 이윤,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 투자 자본 및 청산잔액, 기타 합법적 소유 자산 또는 자본이다.

이와 같은 송금은 연간, 반기 또는 분기 단위로 할 수 있으나 해당 기관 중의 법인세를 사전에 완납해야 한다. 합작 기간 종료나 기업 청산 후 외국 투자자는 출자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신규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에 의거하여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 거래의 경우에는 DICA(직접투자계좌, Direct Investment Accounts)를 통하지 않고 양수도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거래일 경우에만 기존과 같이 DICA를 통하여 양수도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DICA 개설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대출한 금액을 지급받을 때에는 더 이상 DICA를 거치지 않는다. 한편, 개인은 5,000달러 범위 내에서 세관에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으나 5,000달러 이상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대외 결제은행 중앙은행이 지정한 여타 외국환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9. 노무

1) 임금

베트남은 최저임금을 시간당이 아닌 월 기준으로 발표한다(상기 최저임금은 월 기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대략적인 금액임).

베트남은 5개 중앙 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을 1~4 지역으로 분류한 최저 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1 지역 468만 동, 2 지역 416만 동, 3 지역 364만 동, 4 지역 325만 동이다.

베트남 정부는 통상 매해 최저임금을 발표하는데, 국가임금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기회복과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2년간 동결을 유지했지만, 낮은 최저 임금으로 일부 업종 종사 근로자가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2022년에는 7월 1일자로 평균 6% 인상을 결정하였다.

<표 3-19> 베트남 지역구분 현황

구분	지역
1지역	호치민, 하노이, 동나이성, 빈중성, 붕따우성 등
2지역	다낭시, 껀터시, 냐짱시, 닌빈성, 하이중성, 홍옌성, 박닌성, 타이응웬성 등
3지역	떠이닌성 일부, 벤째성 일부, 짜빈성 일부, 박닌성 일부, 타이응웬성 일부
4지역	1,2,3 지역 외 지역

출처: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및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저자 제작성

<표 3-20> 베트남 임금 현황

단위 : 달러 1USD:US\$ 1=VND 23,540

구분	금액
대졸-사무직 초임(평균임금)	370
고졸-생산직 초임(평균임금)	370
최저임금(시간당)	1

출처: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및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저자 제작성

10. 조세제도

1) 법인세

법인세법에서는 오직 회사의 형태를 가진 납세자만을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외국의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베트남 내의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로 언급하고 있다.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 및 베트남 내의 고정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해 외국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2) 법인세율

베트남의 기본 법인세율은 20%이다. 석유, 가스, 천연자원 관련 기업은 이러한 기본 법인세율이 아닌 32~50%의 세율이 적용된다(기본세율은 28~50%). 투자지역, 규모, 업종에 따라 특혜세율(10%, 15%, 17% 중 하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연매출 30억 동(12만 9,000달러) 미만,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기업은 15%, 연매출 500억 동(215만 달러) 미만 근로자 100명 미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17%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3)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투자 기업은 분기별로 안분된 금액을 중간 예납을 하여야 한다. 2020년 10월 19일에 발표된 Decree 126/2020/Nđ-CP에서는 기존 4분기 80% 기준이 3분기 75%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나 적용을 유예하였다. 3분기 법인세 선납할 때 (기한: 10월 30일), 연말에 최종 결정될 법인세의 75%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 법인세의 7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3분기 납부기한부터 기산하여 가산이자 부과된다.

한편, 회계 연도가 종료된 이후 90일 이내에 연 확정 세무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2월 말 결산일을 채택하나, 별도 승인을 받는 경우 12월 말 결산일을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11. 베트남 시장의 제조업 현황

중국 이외의 국가와 지역으로 생산거점을 분산시키는 「차이나 플러스 원」과 탈중국화 움직임으로 최유력 국가로서 베트남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도 자국의 제조업 성장을 위해서 외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을 중심으로 여러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했다.

Samsung, LG등 대형 전자기기 메이커가 생산 거점을 설치해, 베트남은 2019년 제품 수출금액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아세안 2위의 수출대국이 되었다.

한국과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진출처로서 선택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인건비¹⁰⁰⁾, 베트남인의 성격과 유교 문화권의 기업문화와 친화성이 높은 것, 그리고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수출용 제품의 사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제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시의 과제로는 부품과 원자재의 현지 조달률이 낮고, 대기업의 대량 고용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 공업단지 부족, 토지가격과 임대료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베트남 북부 지역은 한국계와 중국계 기업이 몰려 있어 임대공장 입주율은 점차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시장은 신규투자보다는 기존 투자에 대한 증액 투자 증가, M&A 등은 제조업 시장 침체로 하락하였다가 2021년 회복하고 있다.

<표 3-21> 연도별 주요산업 분야별 외국인 투자비율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9월
제조업	71.9	44.3	46.8	64.7	47.6	53.4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	4.7	8.4	18.7	10.1	14.6	8.0
전력, 가스, 용수 생산 및 판매업	0.6	22.6	4.6	2.6	18.0	25.0
호텔&요식업	1.1	1.4	1.6	1.2	1.1	0.6
건설업	2.2	3.4	3.3	2.5	1.9	1.0
물류, 운송업	3.3	1.2	1.1	0.9	2.1	3.4
전문, 과학기술 활동	3.6	3.1	6.1	4.1	4.7	2.9

출처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1. 9. 20. 투자금액 기준

100) Baltas, Tsionas and Baltas(2018) 다국적기업은 노동의 질이 동일하다면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 투자를 할 것이다

베트남의 진출 한국 기업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서 KOTRA 2020년 기준으로 3233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고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제조업 기반의 회사가 가장 많다.

<표 3-22> 2021년 한국기업의 베트남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 개, 천 달러)

업종별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7	2	2,379	9	1,923
광업	4	0	24,417	108	647,936
제조업	997	97	1,460,225	1,257	1,344,915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1	2	14,736	12	1,73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	1	14,157	3	13,534
건설업	47	9	207,725	46	200,982
도매 및 소매업	243	51	453,323	273	339,518
운수 및 창고업	26	1	33,781	28	32,158
숙박 및 음식점업	15	2	26,124	15	26,313
정보통신업	99	24	60,608	106	68,165
금융 및 보험업	32	7	505,065	23	285,747
부동산업	27	6	68,639	33	61,7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5	13	15,384	62	14,58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	5	3,788	10	3,79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1	1	194	1	194
교육 서비스업	4	1	1,671	4	1,67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0	100	1	18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2	9,120	8	9,3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0	44	3	44

출처: KOTRA 홈페이지

1) 전기·전자분야

베트남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요 산업군은 전기·전자산업이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도하에 베트남의 교역량과 GDP 성장에 아주 큰 기여를 했고 베트남 전기·전자기업중 외국인 투자기업수는 1/3에 불과하나 수출은 전기·전자 전체 수출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수요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및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다.

2021년 1~9월 기준 베트남에 증액 투자를 결정한 한국의 전기·전자 분야 기업은 다음 <표 29>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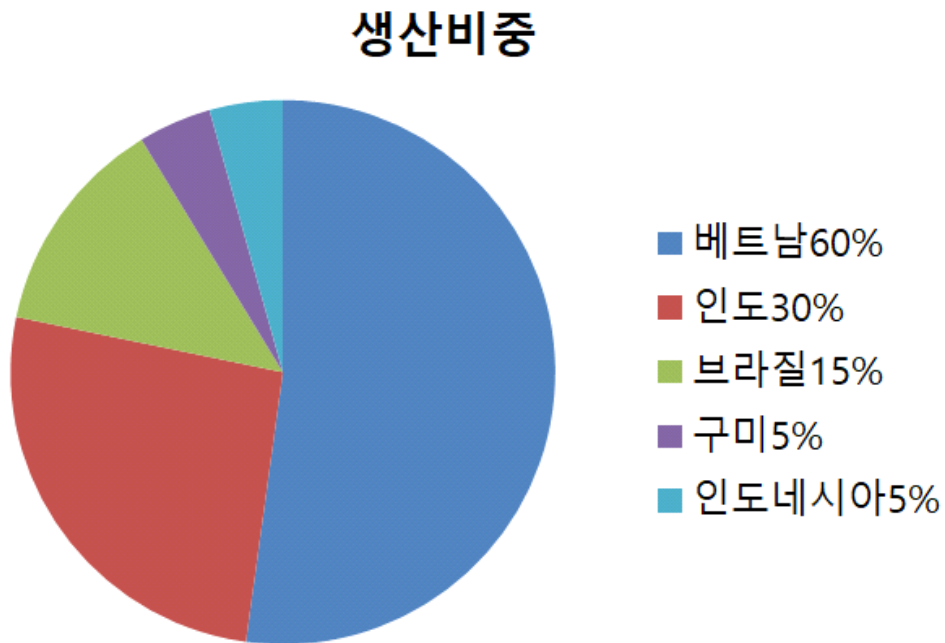
<표 3-23> 2021년 1~9월 한국의 대베트남 전기·전자분야 베트남 투자기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순번	프로젝트명	분야	투자금액	투자시점	투자지역
1	LG DISPLAY (증액투자)	디스플레이	1,400	'21.8월	하이퐁시
2	LG DISPLAY (증액투자)	디스플레이	750	'21.2월	하이퐁시
3	SYNOPEX VIETNAM (증액투자)	전자부품	40	'21.9월	박닌성
4	Patron VINA 2법인	전자부품	30	'21.1월	빈푹성
5	PLATEL VINA	전자부품	30	'21.1월	동나이성
6	LS ELECTRIC VIETNAM	전자부품	25	'21.3월	박닌성
7	Chemilens Vina (증액투자)	광학기기	21	'21.1월	하이즈엉성
8	HAEHWA VINA (증액투자)	광학부품	14	'21.1월	푸토성
9	Vina CNS	전자부품	12	'21.1월	박닌성
10	BUJEON VIETNAM (증액투자)	전자부품	8.6	'21.1월	박닌성
11	HANAPROTE CH VINA	전자부품	7	'21.1월	푸토성

출처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통계자료

예전부터 이어진 해외 생산기지의 베트남 이전이 최근 급속하게 진행 되고 있다. 삼성은 과거 2008년 6억70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 북부 박닌 성 엔퐁 공단에 설립했으며, 2014년에는 호치민 SHTP(사이공하이테크) 등으로 확대하며 전체 8개 공장과 1개의 R&D센터를 건립했다. 총 투자자금 200억달러 이상, 삼성전자의 전체 휴대폰 생산량 3분의 2 이상 수출 및 생산하는 중이다. 베트남 전체 GDP의 25%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약117만명 고용 및 300개 이상의 연관 기업들이 해외 진출 효과를 내고 있다. 북부지역 휴대폰 공장에 이어 가전제품도 남부지역 호치민 9군 SHTP로 통일화 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진출 첫해부터 4년 동안 법인세 면제, 이후 15년 동안 10%납부 조건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다국적 기업 약1200여 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약800개사(65%)가 한국 기업이다. 삼성전자, 한화 테크윈, 오리온, 오투기 등도 진출해 있다

<그림 3-2> 삼성 스마트폰 해외 공장별 생산 비중



출처 :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

베트남 제조업 중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 산업 분야이다. 베트남 자

동차생산자협회(Vietnam Automobile Manufactures Association, VAMA)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 자동차 판매 대수는 총 29만 6,634대로 전년(32만 1,811대 판매) 대비 약 8% 감소하였다.

<표 3-24> 베트남 연도별 자동차 판매 현황

(단위 : 대,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동차 판매량	244,914	301,427	272,750	288,683	321,811	296,634
수입완성 (CBU)	71,874	75,463	77,790	72,979	132,361	109,530
현지생산	173,040	228,964	194,960	215,704	189,450	187,104
전년 대비 판매량 증감률	55%	24%	-10%	6%	12%	-8%

주 : 1)사륜 이상 자동차 통계, 2) VAMA 회원사 및 VAMA 비회원사 통계 합산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출처 : 베트남 자동차생산자협회(VAMA)

<표 3-24>와 같이 2020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동차 판매 시장이 안 좋았으나, 동기간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등록비 감면 정책으로 판매실적은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2019대비 근소하게 감소하였다.

<표 3-25> 베트남 내 자동차 생산 현황

(단위 : 천대)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산량	254.9	240.9	267.1	286.6	249.0
증감률(%)	32.2%	-5.5%	10.9%	7.3%	-13.1%

출처 :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및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표 3-25>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제외하면 베트남 내 자동차 생산량은 연평균 6.3%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표 3-26> 2020년도 베트남 최다 판매 자동차 상위 10위

(단위 : 대)

순위	브랜드명	2020년 총 판매대수	2020년 주력 판매 차종
1	현대-탄콩	81,368	액센트:20,776
2	도요타	70,692	비오스:30,251
3	타코-기아	39,180	세라토:12,033
4	마쓰다	32,227	CX-5:11,803
5	빈패스트	29,485	파달:18,016
6	미쯔비시	28,954	익스펜더:16,844
7	포드	24,663	레인저:13,291
8	혼다	24,418	CR-V:11,365
9	타코트럭	24,119	경트럭:8301
10	스즈키	14,518	XL7:4,433

출처 : 베트남 자동차생산자협회(VAMA), Hyundai-Thanh cong

3) 섬유·의류산업

세계 3대 섬유·의류 수출국인 베트남의 2020년 수출규모는 약 2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6% 감소했으며, 수입규모는 약 2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다.

<표 3-27> 베트남 섬유·의류 분야 수출입 동향

(단위 : 십억달러,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9-'20 증감률
수출	27.0	28.1	31.2	36.3	39.0	29.8	-23.5
수입	16.5	17.0	19.0	21.9	22.4	21.5	-3.8
수출생산용 원부자재 수입	13.2	13.6	15.6	18.4	19.3	14.3	-25.8
무역수지	10.4	11.2	12.2	14.4	16.6	8.2	-82.7

출처 : 베트남섬유의류협회(VITAS), 베트남 관세총국, VCOSA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섬유·의류산업 역시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조업 활동에 장애가 있었으나 2021년 RCEP(지역포괄경제동반자협정) 비준이 완료되어 직물 및 의류 관세를 인하 효과 기대되어 수출규모가 상승하고 있음을 <표 3-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28> 2021년 상반기 베트남 섬유·의류 분야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분류	2021년 1~6월 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총 수출액	19,190	21.0
의류	13,700	11.3
직물	1,115	31.3
섬유·방직사	2,640	64.2
직물원단	367	88.2
액세서리	597	23.0
총 수입액	13,530	31.6
의류	1,583	25.5
직물	7,285	32.0
섬유·방직사	1,324	37.4
액세서리	3,334	32.7

출처 : 베트남 관세통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4) 인프라

공공투자관리 개혁의 일환으로 더 이상 분산투자하지 말 것. 정부는 지난 5개 임기보다 1.5배 높은 총 287억동(약 1,240억 달러)의 공공투자 계획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 70% 공공예산은 주로 지방에서 사용된다. 스포츠 인프라 우선순위 프로젝트, 룡타인 국제공항, 북-남고속(동부), 팡닌에서 킨장까지 1.700km 해안도로, 하이랜드, 북부중앙, 메콩델타의 저수지 및 관개 프로젝트, 하노이 및 HCMC101) 지역의 주력 프로젝트, 보다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프로젝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2021-2025년 공공투자 프로젝트 수가 5,000개로 줄어들 예정이다.

102)

101) Ho Chi Minh City(Saigon) 의 약자

102)

<http://kinhtedothi.vn/doi-moi-quan-ly-dau-tu-cong-cham-dut-dau-tu-dan-trai-manh-mun-421348.html>

<표 3-29> 2021~2025년 사회경제개발계획 내 인프라 투자 방향

구분	내용
교통	2025년까지 남북고속도로, 룡탄국제공항 1단계 완성 해안도로(짱닌성-끼엔장성) 투자자본 할당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투자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주요 항만 프로젝트 지속 추진 도시철도의 조속한 가동 및 고속철도 투자 제안서 제출 지방 도시 간의 연결을 강화: 북부 중부 및 산악 지역을 홍강 삼각주 및 하노이 수도와 연결하는 기반시설에 투자, 중부 고원 지방과 남동부 지역 및 중남부 해안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 경로에 투자, 메콩강 삼각주와 남동 지역 및 호찌민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개발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 메콩델타 지역의 농업 및 농촌지역과 중부 해안 및 고원지대에 주요 수자원 프로젝트 및 저수지 건설
ICT	전국의 IT 인프라 수준 개선 국가, 지역 및 지역 데이터센터 시스템을 구축 국가에서 100% 광대역 인터넷 커버리지를 보장
농촌 및 농촌 기반 시설	농작물 생산 및 생계를 위한 물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중부 고지대, 중남부 지역 및 메콩 삼각주에 관개 작업과 저수지 필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해 기존 수준의 기반 시설도 개선될 예정
도시 기반 시설	도시 철도, 도로 및 기타 토목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완료를 가속화하는 것을 포함

출처: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Fitch Solutions,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저자 제작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베트남 인프라 산업 규모는 약 47억 5700만 달러로 추정한다. 베트남 인프라 산업은 연평균 5~6%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30년에는 110억 4400만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표 3-30> 인프라 시장규모 및 연간 성장률 전망치

(단위: 백만 달러, %)

	2021	2022	2023	2024	2025
시장규모	4,757	5,246	5,775	6,314	6,921
연간 성장률	6.7	6.5	6.3	5.5	5.7

	2026	2027	2028	2029	2030
시장규모	7,589	9,155	10,055	11,044	11,044
연간 성장률	5.7	5.9	5.9	5.9	5.9

출처: Fitch Solutions

이전에 베트남 시장은 베트남 내 국영기업에 의한 프로젝트들이 지배적이었으나 사유시장경제가 가속화되고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베트남 건설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itch Solutions 데이터(KPD)에 따르면, 현지기업이 베트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 비율은 전체의 약 43%를 차지한다.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된 민관협력법(PPP)의 제정은 베트남 정부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더 많은 민간부문 투자를 유치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외국인 플레이어의 역할이 향후 베트남의 전반적인 경쟁 환경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인프라 시장은 현지 기업 외에 한국, 중국 및 일본 등의 계약자들이 57%의 시장점유율로 베트남 인프라 산업의 계약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중, GS건설, 두산중공업, 포스코 건설과 같은 주요 한국 기업들이 시장점유율 15%를 차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KOTRA 2021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해외 수출은 증가하고 있고 그중 제조업 비중이 가장 크다.

따라서 베트남 인프라 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의 회복이 예상된다. 베트남의 경제 회복과 더불어 각종 산업에 대한 외국인 및 민간투자를 유치함에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하지만 베트남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는 2014년부터 꾸준히 50을 넘기고 있었으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2020년 3월 역대 최저인 33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코로나 확산이 둔화되면서 2020년 9월 다시 50을 회복하였으나 2021년 6월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전월(53.1)대비 무려 9.0 포인트 급락한 44.1을 기록하며 악화되었다. 이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업체 폐쇄 및 중단·제한 등 제조업 피해가 늘어나고 생산량, 신규 주문, 영업활동, 구매와 고용 모든 부분에서 위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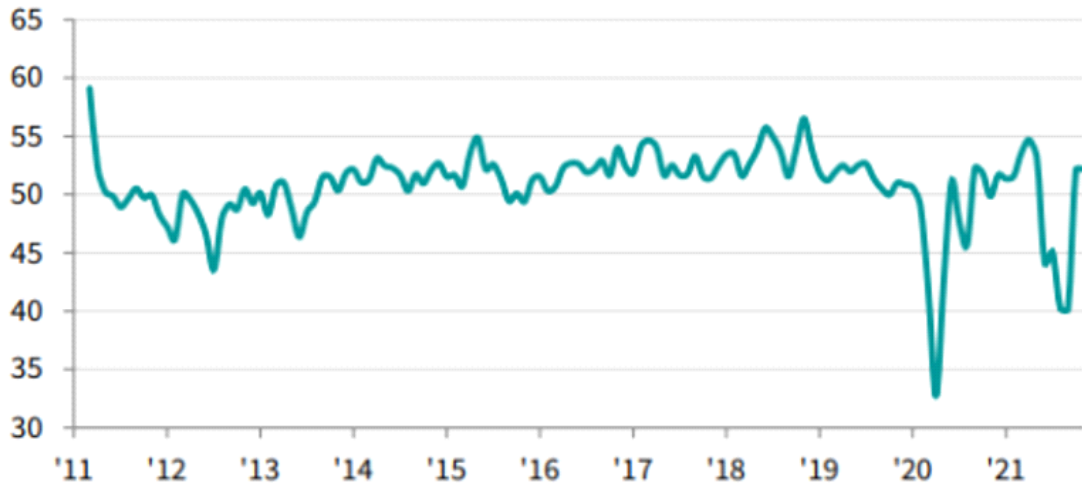
<표 3-31> 2021년 한국기업의 베트남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 개, 천 달러)

업종별 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7	2	2,379	9	1,923
광업	4	0	24,417	108	647,936
제조업	997	97	1,460,225	1,257	1,344,91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1	2	14,736	12	1,73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	1	14,157	3	13,534
건설업	47	9	207,725	46	200,982
도매 및 소매업	243	51	453,323	273	339,518
운수 및 창고업	26	1	33,781	28	32,158
숙박 및 음식점업	15	2	26,124	15	26,313
정보통신업	99	24	60,608	106	68,165
금융 및 보험업	32	7	505,065	23	285,747
부동산업	27	6	68,639	33	61,7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5	13	15,384	62	14,58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	5	3,788	10	3,79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1	1	194	1	194
교육 서비스업	4	1	1,671	4	1,67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0	100	1	18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2	9,120	8	9,3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0	44	3	44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2022년 4월 기준)

<그림 3-3> 최근 10년간 베트남의 제조업 PMI 추이 및 제조업 생산



주: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관리자지수) :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 0~100 사이 수치로 나타낸 것.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 50 미만이면 수축을 의미

출처 : IHS Markit, 베트남 통계청

제4장 연구 설계 및 방법

제1절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한국 투자기업의 성과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특유요인, 내부화요인, 입지요인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형태(단독 대 합작)와 투자동기를 매개변수로 하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도구는 설문조사를 활용하였고 코트라 홈페이지에 있는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2020 파일을 활용하여 베트남 현지 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업식으로 진행한 후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150부 중 결측치가 포함되었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한 설문지는 제외하고 10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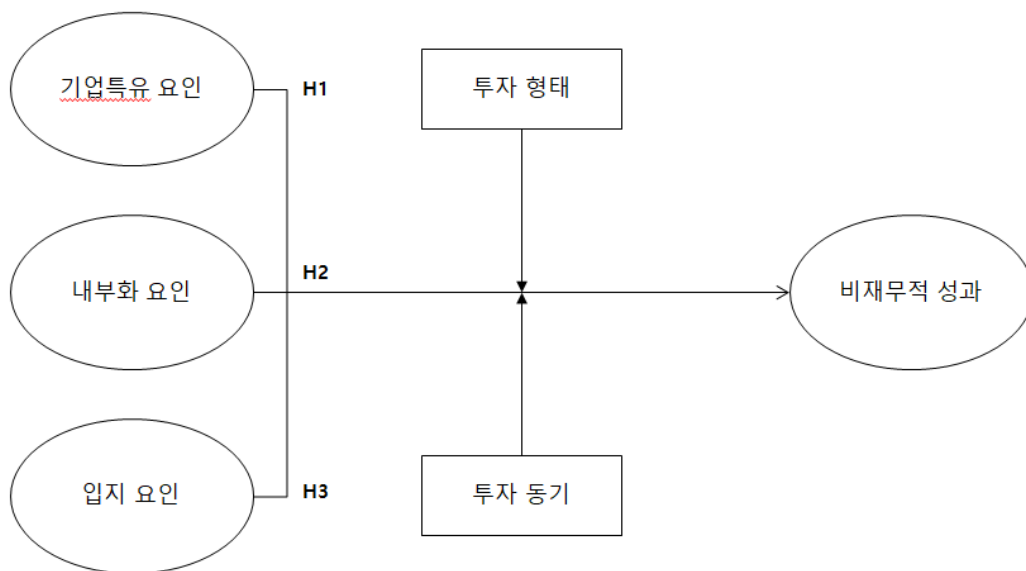
설문대상 기업은 베트남 진출한 한국기업 중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투자액은 미국 달러로 100만불 이상, 베트남에서 3년 이상 경영 중인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제2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연구의 모형은 아래와 같으며 해외투자성과에 대한 독립변수로 기업특유 요인과 내부화요인, 입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자형태(단독투자, 합작투자)와 투자동기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도식화는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설정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은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 해외의 경쟁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차별화된 제품이 필수이다.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축적한 경영노하우와 다양한 경험 또는 모든 정보지식을 통합하여 조직능률화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정재휘·이태희(2019)는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한 한국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 간의 기업 간 기술수출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특유 우위에 해당하는 기술공급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및 기술전수능력은 기술수출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¹⁰³⁾

Hymer(1960)는 외국기업이 갖는 불리함을 충분히 상쇄할만한 어떠한 독점적 우위요인이 없다면 해외직접투자의 성공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¹⁰⁴⁾

이제홍(2010)은 기업특성 요인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며, 이에 따른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당위성을 설명하였다.¹⁰⁵⁾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시 비재무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충요인 중 기업특유요인을 확보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추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FDI 결정요인 중 기업특유 요인은 현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장은 불완전한 상태이다. 이러한 불완전한 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 활동들을 기업 내에 내부화하여 내부시장을 만들어냄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오대혁(2015)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

103) 정재휘·이태희(2019), “절충이론 기반의 기술수출 결정요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통권 제19권, 제2호, 통권 제61호, pp. 227-234

104) Hymer, S.H.(1976),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 firms: A study in direct foreign(Doctoral dissertation, MIT,1960), Cambridge, MA: MIT Press.

105) 이제홍(2012),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리스크 결정요인이 경쟁력에 미치는 연구”, 한국관세학회, 제13권, 제3호, pp. 213-232

과 내부화 요인 중 투자비중이 중요하며, 이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비교 분석에도 존재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자산규모가 클수록 경영성과인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하였다.¹⁰⁶⁾

김형욱(1995)은 거래비용이 유통 경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거래 비용에 따라서 기업의 활동을 시장에서 할 수도 있으며 기업의 내부로 통합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개인보다는 조직의 통합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수직적 통합은 결국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내부화보다 커서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아 거래의 내부화를 만드는 것이 시장 거래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시 비재무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충요인 중 내부화 요인을 확보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추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FDI 결정요인 중 내부화 요인은 현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장의 경쟁상태, 시장잠재력 등 시장관련요인과 임금, 사회간접자본시설, 생산성, 지대 등 생산관련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입지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고병수(2016)는 국내 기업이 생산비용증대와 국내시장의 과잉경쟁 산업 환경을 피하여 새로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오히려 경영성과를 증대시키고 있음을 설명하고 국내기업은 세계경쟁시장에 대한 정보지식과 해외직접투자의 경험이 부족하지만 국내시장의 경쟁과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기업조건에서 입지우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시사하였다.¹⁰⁷⁾

이지수(2021)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입지 요인이 경영성과에 정(+)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입지요인이 동적역량에도 정(+)의 영향을

106) 오대혁(2015),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성과”, 경영컨설팅연구, 통 권 제15 권, 제3호, 통권 제46호, pp. 133-142

107) 고병수(2016),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과 경영성과 간 경쟁전략의 조절효과 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ol.7, No.1 pp. 43-57

준다고 주장하였다.¹⁰⁸⁾

라민툰·방호열(2018)은 한국기업이 해외직접투자 경영성과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일반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표된 학회지 논문을 메타분석(meta-analysis) 하였는데, 분석결과 한국기업이 해외직접투자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입지우위가 정(+)¹⁰⁹⁾의 관계가 있다고 시사하였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시 비재무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충요인 중 입지 요인을 확보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추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FDI 결정요인 중 입지 요인은 현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¹⁰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Woodcock, Beamish, and Makino(1994)의 실증적 연구에서는 독점적 자산 수준이 높을 경우 내부적 통제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⁰⁾

Harrigan(1985)은 시장관련 입지우위와 관련하여 현지 시장의 잠재력과 규모가 높을수록 기업은 이익을 위하여 시장통제력이 좋은 투자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반대로 현지국의 시장규모 및 시장잠재력이 낮아 수요불확실성(demand uncertainty)이 높을 경우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가 진입과 퇴출에 있어 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¹¹¹⁾

왕군강·권영철(2014)은 기술수출의 결정요인을 규명함에 있어 절충이론에서 제시된 이론적 견해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독점적 우위가 높을수록 내부화 수준이 높은 단독투자를 활용할 경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고, 입지우위가 높을수록 내부화 수준이 높은 단독투자를 활용할 경우 경영성과에 미치

108) 이지수(2021),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109) 라민툰·방호열(2018),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결정요인에 대한 종합적 메타분석”, 국제경영리뷰, 제22권, 제2호, pp. 141-163

110) Woodcock, C. Patrick, Paul W. Beamish, and Shige Makino(1993), “Ownership-based Entry Mode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nd Quarter, pp. 253-273

111) Harrigan(1985), *Strategies for Joint Ventures*,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

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하였다.¹¹²⁾

박상협(2017)은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결정요인을 투자동기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투자 동기는 내수시장지향 그룹에서는 현지정부의 우대정책과 수익성 간에 정(+)의 효과가 나타났고, 생산기지 활용 그룹에서는 모기업의 최고경영자 역량과 성장성 간에 정(+)의 조절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³⁾

김영석(2020)은 한국의 대브라질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제조업에 단독투자 대기업은 한국의 대브라질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은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¹¹⁴⁾

백은영(2022)은 한국과 베트남간 세부산업별 기술무역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합작투자 형태일 때 한국의 기술수출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¹¹⁵⁾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시 비재무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충이론의 우위 요인들은 투자방식과 투자동기에 의해 비재무적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네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FDI 결정 요인은 투자방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H4-1 : 기업특유 요인과 경영성과 간 관계는 투자 방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H4-2 : 기업특유 요인과 경영성과 간 관계는 투자 동기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H4-3 : 내부화 요인과 경영성과 간 관계는 투자 방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H4-4 : 내부화 요인과 경영성과 간 관계는 투자 동기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H4-5 : 입지 요인과 경영성과 간 관계는 투자 방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H4-6 : 입지 요인과 경영성과 간 관계는 투자 동기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112) 왕군강·권영철(201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pp. 191-209

113) 박상협(2017), “베트남·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박사학위논문

114) 김영석(2020), “한국의 대브라질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Vol. 17, Issue 1, pp. 7-33

115) 백은영(2022), “해외직접투자와 기술수출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4(3), pp. 65-84

제3절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통제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변수의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수의 선형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독립변수인 기업특유요인, 내부화요인, 입지요인, 조절변수인 현지법인 형태가 비재무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문항구성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은 개념적 정의가 내려진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실제현상과 연결시켜 측정하기 위하여 관찰 가능한 상태로 정의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즉, 조작적 정의는 변수의 측정방법 및 측정변수를 제시하여 개념에 대한 경험적 해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절충이론 관점에서 기업특유 요인, 내부화 요인, 입지 요인이 투자형태와 투자동기에 따라 비재무적성과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수를 도출하였으며,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표 4-1>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 4-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성개념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기업특유 요인	기업특유 자산(노하우)를 활용하여 현지 경쟁을 이겨내는 전략	황철근(2008) 정재휘·이태희(2019)
내부화 요인	내부 거래화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	문해진(2009) 세인쉴튼(2017)
입지 요인	시장의 유리한 접근성 및 현지 정부의 혜택을 이용하는 전략	오대혁(2015) 이지수(2021)
투자형태	기업특유 요인, 내부화 요인, 입지 요인은 투자형태(단독,합작)에 의해 비재무적 성과가 달라진다	노승혁(2004),왕군강· 권영철(2014) 김영석(2020),백은영(2022)
투자동기	기업특유 요인, 내부화 요인, 입지 요인은 투자동기에 의해 비재무적 성과가 달라진다	박상협(2017)
비재무적 성과	기업의 지속성과 사회적 영향까지 평가하는 기준	고병수(2016)

2. 설문문항의 구성

설문지는 크게 다음과 같이 다섯 영역으로 나뉜다. 첫 번째 영역은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근무지에 대한 통계학적 사항 등 일반적인 개요를 질문하는 문항이며, 두 번째 영역은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한 문항, 세 번째 영역은 기업 특유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네 번째 영역은 내부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다섯 번째 영역은 입지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그리고 마지막 영역은 비재무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개요를 질문하는 문항에는 국내 모기업의 종업원 수를 비롯하여, 주력 업종, 주력 제품을 묻는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베트남 현지법인에 관련한 문항에는 현지법인명을 비롯하여, 투자규모, 운영기간, 현지법인 투자 동기, 현지법인 투자 형태를 묻는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FDI 투자 결정요인과 성과에 관한 설문은 본 연구에서 논의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요인과 변수를 구성하였고, 다음 <표 4-2>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문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12일부터 14일 까지 약 3일 동안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 4명, 해외투자기업의 실무 종사자 4명, 관련 분야 연구소 소속 연구원 3명 등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에 사용된 어휘, 내용 등을 보완하여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표현으로 수정하였고, 측정도구의 수정 및 정화절차를 걸쳐 높은 정확도의 내용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4-2> 설문지 문항 구성

구분	항목	문항번호	측정방법
일반개요	종업원 수, 주력 업종, 주력 제품 유형	Section. 1 No. 1-3	자필 작성 및 √체크
베트남 현지법인 관련 사항	현지법인명, 투자규모, 운영기간, 투자 동기, 투자 형태	Section. 2 No. 1-5	자필 작성, 1-2문항 중 선택, √체크
기업 특유 요인	기업 특유 요인에 관항 사항	Section. 3 No. 1-10	likert 5점 척도 선택
내부화 요인	내부화 요인에 관항 사항	Section. 4 No. 1-10	likert 5점 척도 선택
입지 요인	입지 요인에 관한 사항	Section. 5 No. 1-10	likert 5점 척도 선택
비재무적성과	경영성과에 관한 사항	Section. 6 No. 1-7	likert 5점 척도 선택

제5장 연구 결과

제1절 표본의 특성

본 연구 분석을 위하여 조사된 설문 대상자들의 국내 모기업 및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조사는 베트남 현지 법인에 근무하는 102명 근로자로부터 조사하였으며, 편의 표본추출 방식(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표 4-3> 조사대상자의 통제변수에 따른 특성(빈도분석)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주력업종 유형	소비재	45	44.1
	산업재	57	55.9
주력업종	기계장비	6	5.9
	전기전자	24	23.6
	금속철강	15	14.7
	섬유의류	14	13.7
	신발피혁	8	7.8
	목재가구	4	3.9
	석유화학	9	8.8
	기타제조업	22	21.6
현지법인	현지내수시장개척	31	30.4
투자동기	제3국수출생산기지	71	69.6
현지법인	단독투자	93	91.2
투자형태	합작투자	9	8.8
전체		102	100.0

응답자의 통제변수에 따른 결과는 <표 4-3>과 같다. 우선 주력업종 유형으로 소비재인 기업이 45명(44.1), 산업재인 기업이 57명(55.9%)으로 나타났다. 세부주력업종으로 기계장비가 6명(5.9%), 전기전자가 24명(23.6%), 금속철강이 15명(14.7%), 섬유의류가 14명(13.7%), 신발피혁이 8명(7.8%), 목재가구가 4명(3.9%), 석유화학이 9명(8.8%), 기타제조업이 22명(21.6%)으로 나타났다. 현지법인 투자 동기는 현지 내수시장 개척이 31명(30.4%), 제3국 수출생산기지가 71명(69.6%)로 나타났다. 현지법인 투자형태는 단독투자가 87명(85.3%), 합작이 15명(14.7%)으로 나타났다.

제2절 신뢰도 분석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내적일관성의 산출계수인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측정 도구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계수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일반적으로 0-1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보편적으로 0.8-0.9의 값을 가지면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표 4-4>와 같이 각 변수의 측정항목 간의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특유요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847, 내부화 요인은 .877, 입지요인은 .833, 비재무적성과는 .925로 나타나 각 요인별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후 분석에서 각 요인별 문항들의 평균값을 각 요인의 대푯값으로 사용하였다.

<표 4-4> 구성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α
기업특유	문항1	4.00	.658	.847
	문항2	4.03	.636	
	문항3	3.99	.744	
	문항4	4.00	.697	
	문항5	3.96	.743	
	문항6	3.99	.647	
	문항7	4.19	.608	
	문항8	4.07	.664	
	문항9	3.93	.684	
	문항10	3.83	.778	
내부화	문항1	3.80	.678	.877
	문항2	3.84	.698	
	문항3	3.85	.692	
	문항4	4.08	.834	
	문항5	3.80	.944	
	문항6	3.84	.736	
	문항7	3.75	.773	
	문항8	3.93	.827	
	문항9	3.84	.806	
	문항10	3.77	.798	
입지요인	문항1	2.67	.949	.833
	문항2	2.79	1.031	
	문항3	2.67	.963	
	문항4	3.12	.657	
	문항5	3.19	.692	
	문항6	3.15	.766	
	문항7	3.07	.777	
	문항8	2.87	.794	
	문항9	2.96	.706	
	문항10	2.87	.723	
비재무적성과	문항1	3.84	.789	.925
	문항2	3.84	.772	
	문항3	3.81	.766	
	문항4	3.79	.827	
	문항5	3.77	.909	
	문항6	3.73	.890	
	문항7	3.81	.849	

제3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 상관관계는 다음 <표 4-5>와 같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에 따른 각 요인별 대푯값으로 산출된 기업특유요인, 내부화 요인, 입지요인, 비재무적성과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특유요인, 내부화 요인, 비재무적성과는 각 두 변수 간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나 입지요인과 다른 요인들 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표 4-5> 변수 간의 상관관계

(단위: Pearson 상관계수)

	기업특유	내부화	입지	경영성과
기업특유	1	.547	-.363	.610
유의확률(p-value)		<.001***	.001**	<.001***
내부화	.547	1	-.517**	.771
유의확률(p-value)	<.001***		<.001***	<.001***
입지	-.363	-.517	1	-.471
유의확률(p-value)	.001**	<.001		<.001***
비재무적성과	.610	.771	-.471	1
유의확률(p-value)	<.001***	<.001***	<.001***	

*p<.05, **p<.01, ***p<.001

제4절 독립요인과 조절변수가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독립 요인의 비재무적성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가설 1~3)

앞서 선형상관분석을 통하여 각 독립요인과 비재무적성과 두 개의 변수만을 고려할 때는 선형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달리 각 독립요인(기업특유, 내부화, 입지)을 동시에 고려한 비재무적성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4-6>와 같다. 기업특유 요인이 1단계 상승 할 때마다 .404씩 비재무적성과가 상승하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나며(B=.404, t=3.080, p-value=.003), 내부화 요인이 1단계 상승 할 때마다 .759씩 비재무적성과가 상승하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며(B=.759, t=6.419, p-value<0.001), 두 요인에 대한 관계는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다만 입지요인은 1단계 상승 할 때마다 .095씩 비재무적성과가 감소하는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며(B=-.095, t=-0.860, p-value=.393),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3은 기각되었고 이에 연결된 가설 4-5, 4-6은 통계처리가 불필요하고 자동 기각되었다

<표 4-6> 기업특유, 내부화, 입지 요인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p-값	VIF
	B	표준 오차	β			
(상수)	-.446	.730		-.611	.543	
기업특유 요인	.404	.131	.261	3.080**	.003	1.446
내부화 요인	.756	.118	.591	6.419***	<0.001	1.713
입지 요인	-.095	.111	-.071	-.860	.393	1.382
R ² (adjust R ²)				.805(.648)		
F(p)				43.624***(<0.001)		
Durbin-Watson				1.859		

*p<.05, **p<.01, ***p<.001

2. 선별된 독립요인과 투자형태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가설 4)

선별된 독립변수에 대한 조절변수에 대한 검증은 다음과 같이 검증한다. 사전 유의미한 독립변수가 존재한다고 할 때(1단계 독립변수 A만 포함한 단순회귀), 2단계 (독립변수 A + 조절변수 B)로는 독립변수에 조절변수를 추가하고, 마지막 3단계 (A+B, A*B)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곱을 함께 넣어 검증하여 각 모형별 통계량(F 값)이 유의미하게 변화하는지 확인함에 따라 조절효과 존재를 검증할 수 있다.

조절효과는 먼저 해외직접투자 결정 우위요인이 비재무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며, <가설 1~3>에서 채택된 독립변수 기업특유 요인, 내부화 요인에 대하여 조절 변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2-1) 기업특유 요인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가설 4-1, 4-2)

<표 4-7>는 투자형태와 투자동기에 따라 기업특유 요인의 비재무적성과에 대한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지 단계별 회귀분석을 분석한 결과이다. 기업특유 요인 독립변수로 주어졌을 때, 투자형태가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추가적으로 비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치나(2단계 F 변화량은 유의미함), 조절변수로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3단계 F 변화량은 유의하지 않음). 기업특유 요인 독립변수로 주어졌을 때, 투자동기는 추가적인 독립변수로서도, 조절변수로서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4-7> 기업특유, 내부화, 입지 요인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변수		2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가설번호)
독립	조절	F 변화량	p-값	F 변화량	p-값	가설검증
기업특유	투자 형태	45.658***	<.001	.390	.534	(4-1) 기각
	투자 동기	.257	.613	.043	.837	(4-2) 기각

*p<.05, **p<.01, ***p<.001

2-2) 내부화 요인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가설 4-3, 4-4)

<표 4-8>는 투자형태와 투자동기에 따라 내부화 요인의 비재무적성과에 대한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지 단계별 회귀분석을 분석한 결과이다. 내부화 요인 독립변수로 주어졌을 때, 투자형태가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추가적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나(2단계 F 변화량은 유의미함), 조절변수로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3단계 F 변화량은 유의하지 않음). 내부화 요인 독립변수로 주어졌을 때, 투자 동기는 추가적인 독립 변수로서도, 조절변수로서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4-8> 기업특유, 내부화, 입지 요인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변수		2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가설번호)
독립	조절	F 변화량	p-값	F 변화량	p-값	가설검증
내부화	투자 형태	4.090*	.047	1.583	.212	(4-3) 기각
	투자 동기	1.930	.169	.304	.583	(4-4) 기각

*p<.05, **p<.01, ***p<.001

3. 가설검증 요약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과 통계분석 결과에 따른 가설 채택 여부를 다음 <표 4-9>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4-9> 가설 검증 요약

번호	가설	통계량 (t or F)	유의확률	가설채택 여부
가설 1	기업특유 요인은 현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080**	.003	채택
가설 2	내부화 요인은 현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6.419***	<0.001	채택
가설 3	입지 요인은 현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860	.393	기각
가설4-1	기업특유 요인과 비재무적성과 간 관계는 투자 방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390	.534	기각
가설4-2	기업특유 요인과 비재무적성과 간 관계는 투자 동기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043	.837	기각
가설4-3	내부화 요인과 비재무적성과 간 관계는 투자 방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1.583	.212	기각
가설4-4	내부화 요인과 비재무적성과 간 관계는 투자 동기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304	.583	기각

*p<.05, **p<.01, ***p<.001

제 6 장 결 론

제1절 요약

베트남에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 제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그중 단독투자의 비중이 훨씬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시장과 제조업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성과에 대한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절충 이론관점에서 분석하여 해외직접투자의 비재무적성과를 분석해 보았다. 베트남 진출 102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얻었다.

이는 각 독립요인(기업특유, 내부화, 입지)를 동시에 고려한 비재무적성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업특유 요인이 1단계 상승 할 때마다 .404씩 비재무적성과가 상승하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나며($B=.404$, $t=3.080$, $p\text{-value}=.003$), 내부화 요인이 1단계 상승 할 때마다 .759씩 비재무적성과가 상승하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며($B=.759$, $t=6.419$, $p\text{-value}<0.001$), 두 요인에 대한 관계는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다만 입지요인은 1단계 상승 할 때마다 .095씩 비재무적성과가 감소하는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며($B=-.095$, $t=-0.860$, $p\text{-value}=.393$),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결과로 증명하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업특유 요인(기업규모, 다양성, 독점적 지위, 특허, 상표권 등 무형재 및 관련능력, 생산, 조직, 마케팅 시스템, R&D 능력, 인적자본, 경험)은 비재무적성과에 대한 효과로서 기업특유 요인이 상승 할 때마다 경영성과가 상승하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 현지국의 업체에 대한 한국기업의 기업특유 요인은 자회사 비재무적성과에 상승(+)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할 때 기업특유 요인을 꼭 갖춰야만 경영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내부화 요인(거래 당사자 탐색, 협상, 조정비용 절감, 독점적 권리의 보호, 매매자 불확실성 감소, 외부적 가격차별화 불가능/내부시장능력, 제품품질 유지, 거래

및 공급의 안정성 유지, 쿼터·관세 등 정부간섭 및 규제 회피, 전략적 상호보조 등 경쟁전략우위)은 비재무적성과에 대한 효과는 내부화 요인이 상승 할 때마다 경영성과가 상승하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베트남 현지국 업체에 대한 한국기업의 내부화 요인이 좋을수록 한국기업의 경영성과가 좋아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할 때 내부화 요인을 꼭 갖춰야만 경영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입지 요인(생산요소비용, 운반비, 통신비 등 인프라 비용, 관련 인프라 및 관련기업능력, 정부간섭 및 규제/수입규제/투자유인/투자환경, 경제 하부구조, 정치적 안정성, 국제문화적 거리감)은 비재무적성과에 대한 효과는 입지 요인이 상승 할 때마다 경영성과가 감소하는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접투자결정에서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결과이다.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정책으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심해졌고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생산요소 비용, 운반비, 원자재 등의 인프라 관련 비용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나온 결과이다.

또한 절충이론의 입지 요인 우위의 적용을 못하는 상황일수도 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교통 및 인프라 확충, 무역장벽의 감소와 자원 이동의 자유화, 정보의 충분한 공급으로 입지 요인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의 일당 독재체제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는 입지요인의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넷째, 현재 베트남의 진출해 있는 기업들 3,233개 중 단독투자 3,073(95.1%)개, 합작투자회사 160(4.9%)개로 단독투자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¹¹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허기술, 브랜드 상표권과 같은 특유자산을 소유할 경우 가격 산정을 협상 등에 따른 거래비용을 줄이고 해당 자산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단독투자가 합작투자에 대한 차별화가 있다는 설문조사를 했지만 이 역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검증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투자방식이나 투자동기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기업이 매출이 하락한 상황이라 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기에 재검증이 필요하다.

116) KOTRA 홈페이지에 있는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2020 파일을 활용

제2절 시사점

절충이론 관점에 분석한 해외직접투자 성과에 대한 결과는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에게 학문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안내한다.

먼저 학문적으로는 전통적인 학문 중 해외직접투자이론인 독점적 우위론, 내부화 우위론, 입지우위론 등을 통합한 절충이론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데 유효성을 입증했다.

다만 입지우위론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유효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 할 때 문화적·경제적·정치적 환경과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 특유의 경쟁우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베트남 투자 한국기업들은 해외진출 전에 현지 경쟁업체와의 경쟁우위(기술, 마케팅, 영업 노하우등)를 갖추고 확보할 필요가 절실하다. 만약 이런 기업특유요인 없이 무리한 진출을 한다면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둘째, 한국기업들은 베트남 시장에서 주력 업종에 따른 생산과 내부화요인을 점검해야 한다. 내부화요인으로 꾸준한 수익률 확보를 위한 제품품질 유지, 거래 및 공급의 안정성 유지를 해야만 하고 경쟁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여 신규 투자기업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소비 패턴이나 문화·언어적 차이를 이해하고 현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생산관련 요인 또한 경영성과에 주요한 성공요인이 되기 때문에 생산과 조달비용을 저렴하게 그리고 생산성은 최대한 높을수록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공산당 일당독재체제 하에 안정적인 정치체제 및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적극적 FDI 유치 정책으로 인한 우호적 투자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정부의 부정부패나 행정 및 법률 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베트남은 높은 대외교역 의존도로 대외요인에 민감하다. 또한 부품 소재 산업 등 지원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성장산업에 대한 전문 인력 및 기술이 미비하다. 인프라 수준 역시 취약하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인해 소비 심리가 불안하여 내수경기가 악화되었고 시장개방 및 외국기업 진출 확대로 내수시장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인프라 개발 여건도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높은 공공부채 비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긍정적인 이유는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1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중위연령인 30대의 젊은 인구 구조도 좋고, CPTPP, RCEP, EU FTA 체결 등으로 글로벌 통상지변이 확대되고 있어 아주 좋은 기회가 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및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¹¹⁷⁾ 재편과 정부 주도의 디지털 경제 구축 노력, 4차 산업 육성 및 ESG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인프라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 및 민관협력 프로젝트(PPP)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한류 인기로 인한 한국제품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이점이 있다.

하지만 베트남진출 한국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성공적인 경우도 많았지만 실패한 기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본국과는 다른 사회·정치적 이질성,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경험과 준비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절충이론은 물론이고 베트남의 대내·대외적인 환경과 특성들도 분석하고, 이미 진출하여 성공한 기업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117) 글로벌 가치사슬 : Global Value Chain의 약자로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여러 나라를 거쳐 다양한 생산 단계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되는 활동의 총체

제3절 한계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

본 연구는 베트남 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성과에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절충이론관점으로 기업특유 요인(기업규모, 다양성, 독점적 지위, 특허, 상표권 등 무형재 및 관련능력, 생산, 조직, 마케팅 시스템, R&D 능력, 인적자본, 경험), 내부화 요인(거래 당사자 탐색, 협상, 조정비용 절감, 독점적 권리의 보호, 매매자 불확실성 감소, 외부적 가격차별화 불가능/내부시장능력, 제품품질 유지, 거래 및 공급의 안정성 유지, 쿼터·관세 등 정부간섭 및 규제 회피, 전략적 상호보조 등 경쟁전략우위), 입지 요인(생산요소비용, 운반비, 통신비 등 인프라 비용, 관련 인프라 및 관련 기업능력, 정부간섭 및 규제/수입규제/투자유인/투자환경, 경제 하부구조, 정치적 안정성, 국제 문화적 거리감)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 이외에도 많은 전략적 요인들이 해외직접투자 비재무적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 투자성과에 따른 비재무적성과를 분석할 때 많은 기타 전략요인 분석도 필요하다.

둘째,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한국기업이 아주 많은데(3233개 회사) 이번 연구에서는 102개 기업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베트남 해외직접투자기업의 한국기업 중 근로자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기에 경영성과를 비재무적인 성과로만 측정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었다. 재무적인 성과도 같이 측정하다면 더 정확한 연구가 되겠지만 기업의 영업기밀이라 대외공개를 꺼려했고 설문조사 역시 일반 근로자가 아닌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조사가 불가능했다.

셋째, 본 연구는 베트남 내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여기서 사용된 연구모델은 다른 국가에 진출 할 때도 적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연구는 사례도 없었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본 논문의 연구 검증과정에서의 가설 중 많은 기각이 발생했다.

절충 이론의 한계성이 해외직접투자를 무역의 일반균형 이론과 결합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기업의 측면에서만 설명하고 통합모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부분 분

석 이론이라는 점, 미시적인 관점에서 해외직접투자를 바라보았기에 거시적인 경제 단위인 국가 경제와의 마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러한 한계성이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 팬데믹 상황의 종료 후 재검증의 연구도 필요하고 비슷한 상황에 대비를 위한 많은 연구 또한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비재무적성과 측정을 위해 설문지 문항 구성을 리커트 척도 5단계¹¹⁸⁾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양극 척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 문장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비재무성과에 대한 긍정의 반응과 부정의 반응은 알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독립변수로 설정한 변수들을 잘 설명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문 도구를 찾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118)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설문조사 등에 사용되는 심리 검사 응답 척도의 하나이다. 이 척도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렌시스 리커트(Rensis Likert 1932)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조사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리커트 척도는 응답자가 제시된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답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 척도는 5단계 척도가 가장 많다

- 참고 문헌 -

<국내문헌>

- 강지훈(2020), “한국 기업의 대베트남 FDI와 수출 간 인과성 검정”, 무역학회지, pp. 107-123
- 고병수(2016),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과 경영성과 간 경쟁전략의 조절효과 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ol.7, No.1 pp. 43-57
- 고병수(2017), “FDI 결정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경영통상학과, 박사학위논문
- 고봉상(2004),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 구본일·엄영호·전효찬(2008), “우리나라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14권2호, pp.1-60
- 김선한(2007), “아시아의 젊은 호랑이 베트남”,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 김영석(2020). “한국의 대브라질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한국포르투갈브라질 학회, Vol. 17, Issue 1, pp. 7-33
- 김영진(2008), “한국자동차부품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따른 경영성과와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 무역학, 박사학위논문
- 김은(2014),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연구, 제4권 제1호, pp. 19-42
- 김주권(2018),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상관관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동서연구 제30권 4호, pp. 157-177
- 김희준(2009), “ 한국기업의 베트남지역 해외직접투자 패턴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3호, pp. 125-144
- 남기준(2015),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 남대엽(2020),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아

- 태지역연구센터, 중소기업 44권 1호, pp. 141-167
- 노승혁(2008), “한국 기업의 대 베트남 효율적 투자진출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저널 Vol.10 No.6 pp. 3303-3320
- 문해진(2009), “한국 기업의 대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
학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경수·양동우(2006), “연구개발비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
술학회지, pp. 842-864
- 박경환(2018), “한국·베트남 무역특성과 대베트남 수출 증대방안”, 경영교육학회, 제
33권 제3호, pp. 49-71
- 박상협(2017), “베트남·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성환·조현정·지일용(2017),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OLI우위
영향성 연구”, 기술혁신연구 v.24, no.4 pp. 127-158
- 박인수, 곽영대(2019), 외식기업의 관계혜택이 품질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패밀리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1(10), pp. 303-319.
- 방호열(2018),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결정요인에 대한 종합적 메타분석”,
국제경영리뷰, 제22권, 제2호, pp. 141-163
- 배민주(2021), “한국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 요인 비교 연구”, 한남대학교, 무
역학과, 박사학위논문
- 백은영(2022), “해외직접투자와 기술수출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4(3), pp.
65-84
- 서문식(2015), “해외직접투자 정의와 관련한 제 문제”, 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Vol. 12 No.3 pp. 147-180
- 세인쉐튼·박기륜·문계완(2017),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성과에 관한 실증
적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30권 제6호, pp. 1009-1030
- 송재훈(2002), “투자결정요인과 기업특성요인이 한국기업의 대 중국 직접투자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4권 제2호, pp. 211-235
- 양오석·옹웬반쿠앙(2020), “기업의 자본구조에 대한 절충이론과 순위이론의 설명력
비교”, 무역연구, 제16권 제3호, pp. 333-355

- 오대혁(2015),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성과”, 경영컨설팅연구, 통권 제15권, 제3호, 통권 제46호, pp. 133-142
- 왕군강·권영철(201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pp. 191-209
- 윤성임(2018). “소상공인의 긍정심리자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SNS 활용정도 중심으로”,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 103-107.
- 이시욱·전봉걸·장미애·권가원(2013), “국제기준에 따른 외측법상 FDI 정의 및 통계 개선방안”, 산업통산자원부
- 이종덕(2015), “중소기업의 핵심역량과 경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장우·이현숙(2000), “벤처기업의 유형구분과 경영성과”, 벤처경영연구, 제3권 제2호, pp. 3-31
- 이장호(2003), “한국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연구, 제11권, 제1호, pp. 137-169.
- 이제홍(2012),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리스크 결정요인이 경쟁력에 미치는 연구”, 한국관세학회, 제13권, 제3호, pp. 213-232
- 이종건(2019),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 수출제조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 전략과 한국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제e-비즈니스연구, 제20권 제1호, pp. 131-145
- 이지수(2021),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 인양수((2005), “한국중소 제조기업의 해외 자회사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코딩리서치, pp. 3-70.
- 전인오·안운석(2016), “창업마케팅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3), pp. 97-109.
- 정동원(2006),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호서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재휘·이태희(2019), “절충이론 기반의 기술수출 결정요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통권 제19권, 제2호, 통권 제61호, pp. 227-234
- 정종희(2015),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부지원프로그램

램의 조절 효과”,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주원식(2014), “소상공인의 소셜커머스 활용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소셜
커머스 회사와의 관계와 창업가정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경
영학과, 박사학위논문

황철근(2008),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외국문헌>

- Anand J. and A. Delios(1997), "Location Specificity and the Transferability of Downstream Assets to Foreign Subsidia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rd Quarter, pp. 579-598.
- Agarwal, J. P. and Ramaswami(1993),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 Survey",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166, pp. 739-742
- Arbatlim E. C. (2011), *Economic Policies and FDI In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c*, IMF Working Papers, No. 11/192, Washington, DC: IMF.
- Baltas, N., M. G. Tsions and Baltas(2018),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OECD Countries: A Special Focus in the Case of Greece, *Applied Economics*, 50 (52): pp. 5579-5591
- Barney, J.B.(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Vol.17, No.1, pp. 2-30
- Bayraktar, N. (2013),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vestment Climate,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5, pp. 83-92
- Beamish, P. and J. Bank(1987), "Equity Joint Ventures and the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18, pp. 1-17
- Buckley, P. J. and Casson, M.C(1976), *The future of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Macmillan,
- Brewer, T. L.(1993), "Government policies, market imperfection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24, No.1, pp. 101-120
- Caves, Richard E. and S. K. Mehra(1986), "Entry of Foreign Multinationals. into U.S. Manufacturing Industries," in Michael E.Porter.(ed.), *Competition in Global Industries*, Boston: Harvard Press.
- Charles W. L. Hill, Chow How Wee and Krishna Udayasakar(2015) "International Business pp.245-247

- Chang, S. -C. (2014), The Determinants and Motivations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Spatial Gravity Model Approach, *Global Economic Review*, 43(4), pp. 244-268
- Changhui Zhou and Jing Li(2008), "Product Innovation in Emerging Market-Based International Joint Venture: An Organizational Ecology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9, no. 7 pp. 114-312
- Chris Styles and Lis Hersch,(2005) "Relationship Formation in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Insights from Australian-Malaysiam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13 pp. 105-34
- Christmann, P., D. Day(1999), "The relative influence of country conditions, industry structure, and business strategy on multinational corporation subsidiary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No.5, pp. 241-265.
- Contractor, F. J., N. Nuruzzaman, R. Dangol and S. Ranhunath (2021), How FDI Inflows to Emerging Markets Are Influenced by Country Regulatory Factor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27(1), 100834.
- Demirbag, M., Tatoglu, E. and K.W. Glaister(2007), "Factors influencing perceptions of performance: The case of western FDI in an emerging market,"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6, No.3, pp. 310-336.
- Dunning, J.H.(1981), "Explaining Outward Direct Invest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n K. Kumar and M. G. McLeod(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Lexington,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pp. 3-5
- Eric (Er) Fang and Shaoming Zou, (2009)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Marketing Dynamic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0, no.5 pp. 742-761
- G. T. Lumpkin and G. G. Dess,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1 No. 1, 1996, pp. 135- 172

- Gatignon, H. and E. Anderson(1988).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degree of control over subsidiaries: An empirical test of a transaction cost explanation.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42, No.2, pp. 305-306
- Geringer, J.M. and Hebert, L. (1991), "Measuring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22, No.2, pp. 249-263.
- Govindarajan, V. (1984), "Business unit strategy, managerial characteristics and business unit effectiveness at strategy implement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7, pp. 25-41
- Guler, I., and M. F. Guillen (2010), "Institutions and the Internationalisation of US Venture Capital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1, pp. 185 - 205.
- Harrigan(1985), *Strategies for Joint Ventures*,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
- Hennart, J-F. (1986). What is internalization? *Weltwirtschaftliches Archiv*, 791-804.
- Hennart, J. F.(1988), "The Transaction Costs Theory of Joint Ventures: An Empirical Study of Japanese Subsidiaries in the United States", *Management Science*, No.137, pp. 483-497
- Hu, M. Y. and H. Chen(1996), "Foreign Ownership in Chinese Joint Ventures: A Transaction Cost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26. pp.149-160
- Hymer, S.H.(1976),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 firms: A study in direct foreign*(Doctoral dissertation, MIT,1960), Cambridge, MA: MIT Press.
- Huang, X. and R. Chi (2014), Chinese Private Firm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Does Firm Ownership and Size Matter?, *Thunderbird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56(5), pp.393-406.
- J. B. Roure and R. H. Keeley(1990) "Prediction of Success in New Technology Based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5 No. 4, pp. 201-220

- Jean-Paul Roy and Legal Christine Oliver(2009), "International Joint Venture Partner Selection: The Role of the Host-Country Legal Environ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0, no. 5 pp. 779-802
- Jeffrey Q. Bardon, H. Kevin Steensma, and Marjorie A. Lyles(2005) "The Influence of Parent Control Structure on Parent Conflict in Vietnamese IJVs: An Organizational Justice-Based Contingency Approach",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36, no. 2, pp. 156-74
- Karakaya, F. and Stahl, M.J.(1991). Entry barriers and market entry decisions, New York: Quorum Books.
- Killing, J.P.(1983), Strategies for Joint Venture Success, NY: Praeger Press.
- Kotabe, M. and Okoroafo, S.C.(1990), "A comparative study of European and Japanese multinational firms' marketing strategies and performance in the United State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Vol.30, No.4, 353-370.
- Lennon, C. (2006), Trade in Service and Trade in Goods: Differences and Complementarities, PSE Working Papers 2008, 52, Paris School of Economics, Paris.
- Li, J. and S. Guisinger(1991), "Comparative Business Failures of Foreign-Controlled Firm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22, No. 2, pp. 209-224
- Luo, Y.(1995), "Business Strategy, Market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The Case of Joint Ventures in china",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Vol.35, pp. 241-264.
- Mason,C. and Perreault, W.D.(1991), "Collinearity, power, and Interpretation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the Marketing Research*, Vol.28, pp. 268-280.
- Macmillan, I. C., McCaffery, M. L. and Van Wijk, G.(1985), "Competitor's responses to easily imitated new products: Exploring commercial banking product introduc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6, No.1, pp. 75-86
- Makino, S. and A. Delios(1996), " local Knowledge Transfer and Performance

- Implications for Alliance Formation in Asi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27, No.5, pp. 905-927
- Meyer, K.E.(2001), " Institutions, transaction Cost and Entry Mode Choice in Eastern Europ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32, No.2. pp. 350-270
- Mitchell, W., Shaver, J. M. and Yeung, B.(1993), "Performance Following Changes of International Presence in Domestic and Transition Indus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4, No.4, pp. 647-669.
- N. Venkatraman & V. Ramanujam(1986), "Measur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in Strategy Research: A Comparison of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1 No. 4, pp. 801-814
- Nitsch, D, Beamish, P. W. and Makino, S.(1996), "Entry mode and performance of Japanese FDI in Western Europe",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Vol.36, No.1, 27-44.
- 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2008) FOURTH EDITION
- Pangarkar, N. and H. Lim(2003), "Performan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Singapore,"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12, No.5, pp. 601-624.
- Rugman, A.M.(1985), "Internalization is Still General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121, pp. 570-575
- S. Kaplan and D.P. Norton(1992), "The Balanced Scorecard- 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pp. 71-79
- Sengun Yenyurt, Janel D. Townsend, S. Tamer Cavusgil, and Pervez Ghauri (2009), "Mimetic and Experiential Effects in International Marketing Alliance Formations of U.S. Pharmaceuticals Firms: An Event History Analysi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0, no.2 pp. 301-20.1
- Siripaisalpipat. P. and Y. Hoshino(2000), "Firm-specific advantages, entry modes, and performance of Japanese FDI in Thailand", *Japan and the World*

- Economy, Vol. 12, pp. 33-48
- Tallam, D. J. and Shenkar(1994), "Multinational Enterprise: Market Power Consideration", *Sloan Management Review*, pp. 5-7
- R. W. Stuart and P. A. Abetti, "Start- Up Venture: Towards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2 No. 3, 1987, pp. 215-230
- Venkatraman, N. and Ramanujam, V. (1986), "Measur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in Strategy Research: A Comparison of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pp. 801-814.
- Vermeulen(199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p. 190-207
- Wernerfelt, B.(1984), "A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5, No.2, pp. 171-180.
- Woodward, D. P. and R. J. Relfe(1993), "The Location of Export-Oriente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Caribbean Bay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First Quarter, pp. 121-144
- Woodcock, C. Patrick, Paul W. Beamish, and Shige Makino(1993), "Ownership-based Entry Mode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nd Quarter, pp. 253-273
- Yadong Luo(2005), "Transactional Characteristics,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Joint Venture Contrac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6, no. 2 pp. 209-300
- Yang, J. H., W. Wang, K-L Wang, and C-Y Yeh(2018), Capital Intensity, Natural Resources, and Institutional Risk Preferences in China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55, pp. 259-272.
- Zajac, E. J. and Bazerman, M. H.(1991), "Blind spots in industry and compertitor analysi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6 No.1, pp. 37-46
- Zhao, H. and Luo, Y.(2002), "Product diversification, ownership structure, and subsidiary performance in China's dynamic market",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Vol.42, No.1, pp. 27-48.

<홈페이지>

코트라 <https://www.kotra.or.kr/>

OECD <http://www.oecd.org>

IMF <http://www.imf.org>

UN통계국 <http://unstats.un.org>

국민경제자문회의 www.neac.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트남 호치민 지부 <http://www.kotra.or.kr/kh>

베트남 중앙은행 <https://www.sbv.gov.vn>

베트남 통계자료 <http://www.vinahanin.com/statistics>

한국은행 www.bok.or.kr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아시아개발 은행 www.adb.org

스탠다드차타드 www.standardchartered.co.kr

산업통산자원부 <http://www.motie.go.kr/www/main.do>

<http://global.ihs.com>

<https://www.investmentmonitor.ai/global/what-is-fdi>

<http://kinhtedothi.vn/doi-moi-quan-ly-dau-tu-cong-cham-dut-dau-tu-dan-trai-manh-mun-421348.html>

<https://www.vir.com.vn/public-investment-to-spur-faster-growth-84046.html>

<부록> 설문지

NO			
----	--	--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FDI 투자 결정요인과 성과에 대한 설문서]

안녕하십니까?

-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대학원 재학 중인 연구원입니다.
- 본 조사는 학술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FDI 투자 결정요인과 성과에 대한 설문서”입니다.
- 본 조사는 베트남 진출 현지 법인 현황 및 경영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현지 진출 기업 및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시장 진출 및 경쟁력 제고를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본 조사는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대외적으로 철저히 그 자료가 보장됩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번거로움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설문지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처리되어
통계분석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I. 국내 모기업 관련 사항

1. 종업원 수: 약 _____ 명

2. 주력 업종(해당란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장비 전기전자 금속철강 섬유의류 신발피혁
목재가구 종이인쇄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기타제조업

3. 주력 제품 유형: 소비재 산업재

II. 베트남 현지법인 관련 사항

다음은 귀사의 베트남 현지법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일 귀사의 현지법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규모가 큰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지법인명: _____

2. 투자규모: 약 _____ 만불

3. 현지법인이 설립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약 _____ 년

4. 현지법인 투자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현지 내수시장 개척 ②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구축

5. 현지법인 투자 형태

100% 단독투자 합작(자사측 지분율: %)

※ 귀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아래 질문의 해당란에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III. 기업 특유 요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항	평가항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귀사의 제품은 타사제품보다 경쟁력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2. 귀사의 기술보유 정도는 경쟁기업보다 높다	①	②	③	④	⑤
3. 귀사의 제품은 경쟁기업 보다 다양하거나 독특하다.	①	②	③	④	⑤
4. 귀사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귀사는 장기간 국제 업무를 취급하거나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귀사는 투자국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지식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귀사는 투자국에 진출한 경쟁기업의 정보지식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귀사는 경쟁기업에 비해 조직생산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9. 귀사는 조직학습 및 업무의 시스템이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사는 구성원 간 소통시스템이 효율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IV. 내부화 요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항	평가항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귀사와 현지법인 간 원자재 공동이용으로 이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귀사와 현지법인 간 원자재 공동 확보로 이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귀사와 현지법인 간 원자재 공동개발로 이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귀사와 현지법인과 생산인력 공유로 이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귀사와 현지법인과의 경영인력 공유로 이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귀사와 현지법인과의 시장관리기술 공유로 이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귀사와 현지법인과의 연구개발의 공유로 이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귀사와 현지법인과의 생산설비의 공유로 이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귀사와 현지법인의 글로벌시장 공동참여로 이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사와 현지법인의 글로벌시장 마케팅개발로 이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V. 입지 요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항	평가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지법인의 현지 동종 산업 내 경쟁기업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지법인의 현지 동종 산업 내 경쟁강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지법인의 동종 산업 내의 경쟁이 더 강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지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지국의 환율변동성이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현지국의 경기변동의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투자기업에 대한 현지국의 금융상의 규제정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8. 투자기업에 대한 현지국의 세제상 규제정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9. 현지국은 역사적으로 긴밀성(연관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현지국은 문화적으로 긴밀성(연관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VI. 경영성과 요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항	평가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해외투자자로 전년대비 기업매출 증가율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2. 해외투자자로 총매출액이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해외투자자로 총액대비 해외매출액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4. 해외투자자로 해외 판매에 대한 수익률이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해외투자자로 기업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6. 해외투자자로 기업의 내수판매 수익이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귀사와 현지법인과의 생산설비 공유로 이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Determinants on the Performance of Korean Companies Entering Vietnam

Ki-Yun Ko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Jeju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the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the FDI decision factors of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in Vietnam upon their performances and the suggestions that domestic companies preparing FDI to Vietnam in near future accomplish non-financial performances throug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advantage theory of monopoly and the advantage theory of internalization, however, there are negatives(-) among the location factors.

As almost all companies have suffered from selling down under the circumstances of COVID-19, there are lack of the effectiveness of this examination.

Futhermore, without these reasons, the cases of failure of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Vietnam are gradually increased.

There are lacks of well preparations and shortages in the know-how stemming from the differences of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between Korea and Vietnam.

Therefore, based on these results, Korean companies planning FDI to Vietnam are required to analyze internal and external entronements and attributes of Vietnam, and prepare with know-how and experiences of companies that have successfully invested in Vietnam.